

문화나누美

#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예술타리'〉는 '나누면 누구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자들의 예술활동을 지켜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전화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눈 위에 쓰는 겨울 시

- 류시화

누구는 종이 위에 시를 쓰고  
누구는 사람 가슴에 시를 쓰고

누구는 자취없는 허공에  
대고 시를 쓴다지만

나는 십이월의 눈 위에  
시를 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나의 시



## SPECIAL

- 08 인터뷰 \_ 경기도박물관 전보삼 관장
- 12 ASAC 초대석 \_ 무대미술가 하성옥

## ASAC STAGE

- 18 음악극 \_ 에릭사티
- 22 공연 \_ 아삭(ASAC)하게 살아보세! 한마당 in 안산
- 23 공연 \_ 벨루스카르트의 '60분간의 세계일주'

## CULTURE TREND

- 28 테마가 있는 미술 \_ 르네 마그리트
- 33 테마가 있는 공연 \_ 무대와 스크린
- 38 테마가 있는 음악 \_ 오페라와 영화
- 43 킬렘 \_ 아동·청소년의 적응장애

## REST

- 50 대부도 \_ 정문규미술관
- 55 누구나 작가가 된다

## NEWS





- 62 안녕?!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63 2015 City Beat Party
- 66 2015 ASAC 송년음악회
- 68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전

## REVIEW

- 72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 2015. 11 (NOVEMBER)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쉬는 시간 15:00/ 별무리극장</p> <p>대관 난타홀릭쇼 17:00/ 해돋이극장</p> <p>대관 중국국제예술단 초청 안산공연 14:00/ 달맞이극장</p>	<p>2</p> 	<p>3</p> <p>기획 몸짓페스티벌 춤이 말하다 20:00/ 달맞이극장</p>	<p>4</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쉬는 시간 20:00/ 별무리극장</p>	<p>5</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쉬는 시간 17:30/ 별무리극장</p>	<p>6</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쉬는 시간 14:30/ 별무리극장</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쉬는 시간 15:00/ 별무리극장</p> <p>대관 안산필코러스 제2회 정기연주회 19:00/ 해돋이극장</p>	<p>7</p> <p>기획 몸짓페스티벌 보디콘서트 17:00/ 달맞이극장</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쉬는 시간 15:00/ 별무리극장</p> <p>대관 안산필코러스 제2회 정기연주회 19:00/ 해돋이극장</p>
<p>8</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쉬는 시간 15:00/ 별무리극장</p>	<p>9</p>	<p>10</p> <p>대관 위생교육 보충 14:00/ 해돋이극장</p> <p>대관 카라싱어즈 정기연주회 19:30/ 달맞이극장</p>	<p>11</p> <p>대관 안산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달맞이극장</p>	<p>12</p> <p>대관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정기연주회 19:30/ 해돋이극장</p> <p>대관 원곡중학교 정기연주회 19:00/ 달맞이극장</p>	<p>13</p> <p>대관 제5회 해양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5:00/ 해돋이극장</p> <p>대관 청소년음악발표회 15:00/ 달맞이극장</p>	<p>14</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3분47초 15:00/ 별무리극장</p> <p>대관 제14회 함께 희망을 16:00/ 해돋이극장</p> <p>대관 지구촌합창단 헨젤과 그레텔 19:00 / 달맞이극장</p>
<p>15</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3분47초 15:00/ 별무리극장</p> <p>대관 지구촌합창단 헨젤과 그레텔 19:00 / 달맞이극장</p>	<p>16</p>	<p>17</p>	<p>18</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3분47초 20:00/ 별무리극장</p> <p>대관 연극 아빠의 프로젝트 10:00,13:00,16:00/ 달맞이극장</p>	<p>19</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3분47초 14:30/ 별무리극장</p> <p>대관 연극 아빠의 프로젝트 10:00,13:00,16:00/ 달맞이극장</p>	<p>20</p> <p>기획 City Beat Party 20:00/ 해돋이극장</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3분47초 20:00/ 별무리극장</p>	<p>21</p> <p>기획 City Beat Party 19:00/ 해돋이극장</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3분47초 15:00/ 별무리극장</p>
<p>22</p> <p>기획 B성년페스티벌 3분47초 15:00/ 별무리극장</p>	<p>23</p>	<p>24</p> <p>대관 종물마당 터주 돈배마놀이 20:30/ 달맞이극장</p>	<p>25</p>	<p>26</p> <p>대관 극단예지촌 19:30/ 별무리극장</p>	<p>27</p> <p>기획 에릭사티 20:00/ 달맞이극장</p> <p>대관 극단예지촌 19:30/ 별무리극장</p>	<p>28</p> <p>기획 에릭사티 15:00,19:00/ 달맞이극장</p> <p>대관 그라시아스합창단-칸타타 19:00/ 해돋이극장</p> <p>대관 극단예지촌 15:00,18:00/ 별무리극장</p>
<p>29</p> <p>기획 에릭사티 15:00/ 달맞이극장</p> <p>대관 그라시아스합창단-칸타타 19:00/ 해돋이극장</p> <p>대관 극단예지촌 15:00,18:00/ 별무리극장</p>	<p>30</p> 	<p>31</p>  				

# 2015. 12 (DECEMBER)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1</p> <p>기획 장애인연극 / 별무리극장</p>	<p>2</p> <p>기획 장애인연극 / 별무리극장</p>	<p>3</p> <p>기획 장애인연극 / 별무리극장</p>	<p>4</p> <p>대관 극단 오아시스 20:00/ / 별무리극장</p>	<p>5</p> <p>대관 자원봉사 센터 13:30/ 달맞이극장</p> <p>대관 전국학생음악콩쿠르 09:00/ 별무리극장</p>
<p>6</p> <p>기획 청소년극단 고등어 남독공연 / 별무리극장</p> <p>대관 실용무용 갈리아쇼 18:00/ 달맞이극장</p>	<p>7</p>	<p>8</p> <p>대관 52회 정기연주회 1차 19:30/ 해돋이극장</p> <p>대관 현울림 정기연주회 19:00/ 별무리극장</p>	<p>9</p> <p>대관 반월드림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해돋이극장</p> <p>대관 안산팜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 19:30/ 달맞이극장</p> <p>대관 청석초 오케스트라 공연 19:00/ 별무리극장</p>	<p>10</p> <p>대관 52회 정기연주회 2차 19:30/ 해돋이극장</p> <p>대관 안산팜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 19:30/ 달맞이극장</p> <p>대관 청석초 오케스트라 공연 19:00/ 별무리극장</p>	<p>11</p>	<p>12</p> <p>기획 노부스 카르넷-죽음과 소녀 17:00/ 달맞이극장</p> <p>대관 제4회 앤섬코랄 정기연주회 17:00/ 해돋이극장</p>
<p>13</p> <p>기획 아카데미예술제 /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p>	<p>14</p>	<p>15</p> <p>대관 UN평화음악회 19:30/ 해돋이극장</p>	<p>16</p> <p>기획 안녕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달맞이극장</p> <p>대관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14:00/ 해돋이극장</p> <p>대관 생각을 키우는유치원 18:30/ 달맞이극장</p> <p>대관 가을동네 20:00/ 별무리극장</p>	<p>17</p> <p>대관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14:00/ 해돋이극장</p> <p>대관 생각을 키우는유치원 18:30/ 달맞이극장</p> <p>대관 가을동네 20:00/ 별무리극장</p>	<p>18</p> <p>기획 벨루스카르넷 60분간의 세계일주 19:30/ 별무리극장</p> <p>대관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14:00/ 해돋이극장</p>	<p>19</p> <p>대관 2015파리나무시자가 소년합창단 19:00/ 해돋이극장</p> <p>대관 거울왕국 11:00,14:00,16:00/ 달맞이극장</p>
<p>20</p> <p>대관 겨울왕국 11:00,14:00,16:00/ 달맞이극장</p> <p>대관 짚대소리 국악 13:00/ 별무리극장</p>	<p>21</p>	<p>22</p>	<p>23</p> <p>대관 맑은 밤 혼자 걷는다 19:00/ 별무리극장</p> <p>대관 추경자 11:00,13:00/ 달맞이극장</p> <p>대관 2015 판소리한마당 19:30/ 별무리극장</p>	<p>24</p> <p>기획 2015 ASAC송년음악회 19:30/ 해돋이극장</p> <p>대관 추경자 11:00,13:00/ 달맞이극장</p> <p>대관 2015 판소리한마당 19:30/ 별무리극장</p>	<p>25</p> <p>대관 가치있는 꿈의 학교 14:00,17:00/ 별무리극장</p>	<p>26</p> <p>대관 종물마당터주 제19회 정기공연 19:30/ 별무리극장</p>
<p>27</p> <p>대관 친정엄마 14:00,17:00 / 해돋이극장</p> <p>대관 종물마당터주 제19회 정기공연 19:30/ 별무리극장</p>	<p>28</p>	<p>29</p>	<p>30</p> <p>대관 신갈중 뮤지컬발표회 11:00,19:00 / 달맞이극장</p>	<p>31</p>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난 당신을 원해!  
*Je te veux*

# 에릭사티

음악극



Alfred Leslie

2015.11.6 | FRI ~ 8 | SUN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 시간 금 8PM 토 3·7PM 일 4PM  
티켓 R석 5만원 S석 3만원  
11.20 | FRI ~ 21 | SAT |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 시간 금 8PM 토 3·7PM 일 4PM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11.27 | FRI ~ 29 | SUN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 시간 금 8PM 토 3·7PM 일 3PM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극본 김민정 | 원작 정민선 | 연출 박혜선 | 음악감독 신경미 | 안무 서미숙 | 출연 박호산·김태환·백해선·한성식·신문성·김용호·김기창·송형은·이형준·임수빈 |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안산문화재단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안산문화재단 제작 안산문화재단  
예매처 | 안산문화재단 | 02-3668-0007 www.koreapac.kr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콜센터 080-481-4000 www.ansanart.com | 인터파크 1544-1555 www.interpark.com

# SPECIAL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08 인터뷰  
경기도박물관 전보삼 관장

12 초대석  
무대미술가 하성옥

대한민국 박물관,  
단수가 아닌 복수의  
문화나눔터로  
자라야

경기도박물관  
전 보 삼 관장



하늘다리를 통해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향후 박물관 운영을 위한 밑그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20주년을 맞는 경기도박물관은 경기도만의 박물관이 아닌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박물관 건축물, 유물, 그동안의 조사·연구 실적, 창의 인성 교육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 온 경기도박물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상적인 박물관은 어떤 모습인지요?**

도민과 함께 가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의 개념 정의에는 항구성과 비영리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충족시키는 단어는 '기증', '기부문화의 확산'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도민과 함께, 도민의 사랑 속에서 발전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해기념관 설립이라는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경기도박물관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만해기념관은 사립박물관으로 지난 36년간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이 설립자인 저의 몫일 수밖에 없었으며, 박물관의 효과적 경영과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공공재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 등을 그 대표적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부터 40%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경영의 효율화(입장료 수익, 뮤지엄숍 운영, 시설 대관 등)를 통한 재정의 충족이 유일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할시 설립자 개인의 사적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립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복, 그리고 자긍심과 오랜 박물관 운영으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경기도박물관 운영에도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박물관협회 등을 거치며 경영인으로서 쌓아 오신 다양한 경험을 경기도박물관에 어떠한 형태로 접목시키실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박물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영과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은 경영인이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영과 마케팅 그리고 홍보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복수의 문화 확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박물관이란 단수의 문화가 아닌 '복수의 문화'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문화라는 인식을 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들에 대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지역문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역사회로부터의 사랑과 관심 없이는 박물관의 성장이란 없습니다. 지역화가 곧 세계화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이 지금까지 이룩한 업

적 중, 기증 유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는 장점을 살려내서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박물관', '지역문화와 소통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지역문화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기도박물관은 현재 거리상, 형편상 박물관을 찾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하여 박물관 버스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200명 이하의 초등학교, 특수학급,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초대해 박물관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lcome to 경기도박물관'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소외계층도 박물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박물관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새로운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저는 개인뿐 아니라 시군 간의 문화편차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낙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 역시 중요합니다. 경기도박물관이 가진 소프트웨어, 즉 전문 인력과 지역이 가진 하드웨어의 결합을 어떻게 융·복합시킬까를 생각하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박물관의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하여 전시로 풀어냄으로써 지역 간의 편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빅데이터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이에 대한 준비와 비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박물관은 최근의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홈페이지, SNS,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콘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균관대와 산학협력을 맺었습니다. 현재는 1단계로 비콘을 통해 전시설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안정화 되면 관람객의 박물관 방문 패턴과 횟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방문 목적과 취향 등에 걸맞게 개별 맞춤형으로 교육, 전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물에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은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입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박물관은 생명력이 넘치는 박물관입니다. 경기도박물관 직원은 물론이고 31개 시군에 근무하는 박물관인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도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는 꼭 필요한 행사입니다.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우수자에게는 도지사님 상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지역화가 곧 세계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경기도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유물과 문화콘텐츠들이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보아도 될 정도의 훌륭한 복식, 초상화, 도자 유물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 더욱 힘쓰면서 세계화로 나아가겠습니다.

**내년 경기도박물관이 20살 성년식을 치르게 됩니다. 본격적인 성인으로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경기도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경기도박물관의 20년 간의 역량과 성과를 묶어내는 특별전시로 <경기사대부의 복식문화대전>과 <경기스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전 <경기사대부의 복식문화대전>은 조선시대 경기지역 사대부의 복식을 통해 조선시대의 복식문화를 재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경기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복식유물은 다른 어떤 박물관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급의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기도 지역 18개 명문가에서 기증한 1,200여 점의 유물 중 150여 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별전 <경기스타전>은 2016년 브라질올림픽을 기념하여 경기도 출신 스포츠 스타를 조명하고, 근대 스포츠의 산실인 경기도의 이미지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입니다. 올림픽 및 근대 스포츠와 관련된 유물 2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해외특별전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 1월 출범한 이래로 안산시민에게 문화예술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에 알맞게 안산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문화를 진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정비와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과의 교감,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으로  
끊임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다

무대미술가 **하성옥**

# Stage Designer Ha Seon-uk

‘염전 이야기’, ‘엄마의 이력서’ 등 굵직한 작품들로 안산문화재단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무대미술가 하성옥이 만들어가는 무대 밖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특히 이번 11월에 안산시민들과 만나게 될 음악극 ‘에릭사티’의 무대미술까지 도맡은 그를 만나게 된다니 그 감회가 남다르다.

## 무대 밖에서 만난 또 다른 인상

공연 무대의 표정을 만들어내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인 무대미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공간을 녹여내야 하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일까 지난 10월 대학로 한 카페에서 만난 그의 첫 인상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와의 만남이 유독 반가웠다. 그간의 인터뷰를 통해 만난 어느 공연 관계자들과 닮은 점만큼이나 다른 점도 많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무심히 꺼내든 인터뷰 질문지의 양이 꽤나 방대함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하지만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내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하성옥 무대미술가는 안산문화재단과의 인연이 꽤나 깊은 인물로, ‘염전 이야기’, ‘엄마의 이력서’ 등 굵직한 작품들로 안산시민들과 앞선 만남을 가진 이력이 있다. 그러한 인연이 오늘의 만남을 만들었고, 오늘의 인연이 보다 풍족한 내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다.





**무대미술, 그리고 교감으로 일궈낸 감동**

그가 이해하고 있는 무대미술가의 조건은 팔방미인 그 자체다. 실제로 그의 주변 또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무대미술가들의 이력이 그 현실을 입증하고 있기도 하다.

“무대미술가는 어느 한 분야에 치중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경영학, 심리학, 문학, 미술, 건축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공간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력을 시작으로 작품을 극대화해 표현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이 그것이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의 말은 무대미술가를 꿈꾸는 사람들의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일까 그의 직업이 더욱 특별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한편 스스로 꼽는 최고의 무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관객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가능했던 모든 무대죠.”라며 힘주어 말한다. 이에 재차 특정 사례를 부탁했다. 그렇게 그가 상기한 작품은 아르코예술극장에 올려졌던 러시아의 문호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Антон Павлович Чехов, 1860~1904년)의 연극 반야아저씨(Dyadya Vanya)였다. “그 공연이 끝나고 난 뒤 어느 잡지에 실린 평론가의 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글을 보며 희열에 휩싸였었는데요. 그 평론가 선생님과의 교류가 없었음에도 작품을 위해 작업실에서 몰두했던 저의 작업과정과 고민들을 마치 실제로 본 것처럼 묘사했더라고요.”라며 당시의 희열을 되새김질했다. 이는 평론가의 대단한 통찰력에서 기인했을 수도, 또는 그 스스로가 관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작은 보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하성옥 무대미술가는 그때의 결과를 “모든 작품의 바탕이 되는 프로세스인 무대, 의상, 소품, 연출, 배우, 컴퍼니 등 다양한 스태프들이 함께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며 당시의 모든 스태프들에게 공을 넘겼다.

**그를 통해**

**에릭사티를 그리는 방법**

11월 27일 안산문화재단 달맞이극장에서 그 막을 열게 될 뮤지컬 ‘에릭사티’의 무대미술을 책임지게 된 하성옥 무대미술가. 그가 분석한 에릭사티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로 그 스스로가 닮고 싶은 인물이자 늘 흠모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물로 단정한다.

“그가 다시 살아나 서있을 무대를 구상하며 끊임없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아울러 그 시대의 음악을 오늘의 제가 듣고 있다는 현실이 주는 묘한 흥분감도 매력적이었고요.” 그가 표현한 이 짧은 문장을 통해 무대 위에서 다시 부활할 에릭사티라는 인물이 벌써부터 궁금해 졌다. 어떠한 모습으로 관객과 호흡하며 무대를 채워갈지 말이다.

그리고 다시 드는 궁금증. 시공간을 넘나들며 표현되어져야만 하는 그 무대가 하성옥 감독을 만나 어떻게 표현될지. 이에 그는 “포인트를 찾기 위해 강렬하게 마주하는 시각적 언어 또는 감명받은 문장들을 찾아 하나의 내러티브(narrative)로 연결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복잡하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었죠.”라며 명쾌한 답변을 들려준다.

또 “보다 재미있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는 팁이 있는데, 에릭사티와 동시대를 살았던 피카소의 그림을 움직이는 무대장치로 꾸며 시대를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 가능하길 바라는데, 이 같은 의도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랍니다.”라며 뮤지컬 에릭사티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마치 무대미술가가 아닌 이야기꾼처럼.





## Mini Interview

### 무대미술가로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들 중 처음으로 받는 질문이다. 스스로 지향하는 바는 일류는 아니다. 하지만 이류에 멈추어 있기는 싫다. 굳이 점수를 준다면 1.5점? 기준이 모호하다.

### 현재의 직업이 주는 매력이 있다면?

자기의 길을 갔으면 하고, 그 답은 마음이 전해준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질문 드린다면?

타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예전의 제가 희곡작품을 통해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간으로 표현하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 등 너무 많다.

### 무대미술가라는 오늘의 모습을 운명이라 생각하는지?

미술을 전공했다. 대학졸업 후 보통의 친구들은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연장했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선배로부터 패션쇼의 무대디자인을 제안받았다. 흥미로웠고 나름 훌륭히 해냈다. 그 후 무대미술에 대한 매력에 빠졌다. 아마도 운명인 듯하다.

### 본인을 멘토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


솔직히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어렵다. 나의 경우 좋은 연출가, 그리고 컴퍼니와 같은 훌륭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질문에 대해 여전

히 나 스스로에게 반문 중이며 해답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 앞으로 실현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무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공간디자인을 해보고 싶다. 더불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컴퍼니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무대미술가가 아닌, 스스로가 만든 작품으로 컴퍼니를 선택할 수 있는, 무대미술가를 넘어 공간연출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조금씩 준비 중이다. 하지만 결국 어느 쪽이나 행복하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 안산문화재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안산문화재단의 경우 젊은 희극작가의 발굴과 작품의 자체제작에 꾸준히 힘써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 물론 충분한 경제적 여건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결국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안산 시민 여러분!

건강 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예쁜 나라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하하하



# STAGE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18 음악극  
〈에릭사티〉

22 공연  
아삭(ASAC)하게 살아보세! 한마당 in 안산

23 공연  
벨루스콰르텟의 '60분간의 세계일주'



음악극  
**에릭사티**

19세기 인정받지 못한 천재작곡가 에릭 사티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음악극으로 풀어낸 음악극 <에릭사티>는 미니멀한 사티의 음악세계를 표현하면서, 음악이 담고 있는 서정성을 기본으로 그의 도전을 보여준다. 미래에서 온 태한을 만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겪지만, 그것은 창작의 고통과 함께 기쁨을 선사하며 의상에서는 초연에서 볼 수 없었던 다채로운 컬러와 이미지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그림자 놀이, 자이언트 퍼펫, 마임, 발레 등은 자신의 음악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채로운 것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해왔던 사티의 실험정신을 보여준다. 또한 1917년 프랑스 파리 샤틀레극장에서 초연되었던 발레극<파라드> (작/장콥도, 작곡/에릭 사티, 연출/세르게이 디아길레프, 무대/파블로 피카소)를 오마주한 장면은 너무 낡은 시대에 너무 일찍 온 에릭사티의 예술세계를 선명히 보여준다.

**2015.11.6(금)-11. 29(일) 총 8일간 11회 (100분)**

No	지역	공연장	공연기간 / 관람료
1	서울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주최_안산문화재단	11. 6(금) - 8(일) 3일 4회 금 8PM, 토 3·7PM, 일 4PM R. 5만원, S. 3만원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2	대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주최_대전예술의전당	11. 20(금) - 21(토) 2일 3회 금 8PM, 토 3·7PM R. 3만원, S. 2만원 예매처: 042-270-8333
3	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주최_안산문화재단	11. 27(금) - 29(일) 3일 4회 금 8PM, 토 3·7PM, 일 3PM R. 3만원, S. 2만원 예매처: 080-481-4000

창 작 진 : 작곡\_정민선, 연출\_박혜선, 대본\_김민정, 음악감독\_신경미, 안무\_서미숙, 무대\_하성욱

출 연 : 박호산, 김태한, 배해선, 한성식, 신문성, 김용호, 김기창, 송형은, 이형준, 임수빈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재)안산문화재단

주 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안산문화재단

제 작 : 안산문화재단

관람연령 : 8세 이상 관람가 (중학생 이상 관람추천)

공연문의 : 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 031-481-4022

## 제작진

### 김민정 | 대본

연극 [브루스티카숲], [싸움꾼들], [다녀왔습니다], [브라질리아], [섬], [달의기억력],  
[바다거북의 꿈], [등화관제]  
오페라 국립오페라단 [아랑]  
뮤지컬 [와이키키브라더스], [댄서의 순정]

### 정민선 | 작곡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카르멘] 작곡  
수상 : 2001 한국뮤지컬대상 작곡상 수상

### 박해선 | 연출

연극 [엄마의 이력서], [만파식적 도난사건의 전말], [이단자들], [나 왔어요 엄마], [그 집 여자],  
[염전이야기], [에릭사티], [아내들의 외출], [도시의 정글 속에서], [억울한 여자], [가을 소나타], [트릿],  
[남편을 빌려드립니다], [주머니 속의 돌], [프라우다], [완전한 오해], [도미에 관한 세가지 연상],  
[귀여운 장난], [블랙박스], [그림자를 찾아서], [배우 셋 그리고 나...]  
뮤지컬 [라롱드]

### 신경미 | 음악감독

뮤지컬 [구름빵] 작편곡 음악감독  
뮤지컬 [사이드 미리] 작곡 음악감독  
[천상시계], [콩칠팔새삼륙], [어썬신], [안악지에서], [카르멘] 음악감독

### 하성옥 | 무대디자인

[꿈], [사랑이 온다], [무대가 좋다-트루웨스트], [남산공동프로젝트], [엄마를 부탁해],  
[무대가 좋다-프루프], [안녕, 피투성이 벌레들아], [왕은 왕이다], [베리베리 임포던트 펄슨], [헬리혜성],  
[에브리맨], [그대를 속일지라도], [연극열전 3rd-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아내들의 외출],  
[연극열전 3rd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에이미], [바나아저씨], [가을 소나타], [봄 작가 겨울무대],  
[언니들], [피아프], [오늘, 손님이 오신다], [태풍이 온다], [친정엄마와 2박3일], [오셀로],  
[억울한 여자] 외 다수

### 김혜민 | 의상디자인

연극 [락희맨 쇼], 체호프 [바나아저씨], [오셀로], [오아시스세탁소습격사건] 연극열전2 [웃음의 대학]  
뮤지컬 [스페셜레터], [카르멘], [싱글즈], [내 마음의 풍금]

### 정치호 | 분장디자인

## 출연진

					
에릭사티(박호산)	태한(김태한)	수잔발라동(배해선)	파블로 피카소(한성식)		
<b>뮤지컬</b> <미제리코르디아>(러브레터) <디셈버>(영웅을 기다리며) <내사랑 내곁에>(빨래) <광화문연가> 외 다수  <b>연극</b> <도둑맞은 책>(데스트랩)(줄리 어스 시저)(울모스트 메인) <유쾌한 하녀 마리아>(폼바) <14인 체홉>(광해 왕이 된 남자) <벚꽃동산>(별들의 무덤)(우먼 인 블랙)(임대아파트) 외 다수	<b>뮤지컬</b> <카페인>(커피프린스1호점) <겨울연가>(김종욱찾기) <싱글즈>(사랑은 비를 타고) <파이브 코스 러브> <미스터 마우스>외 다수  <b>연극</b> <이바노프>(찌찌한 로맨스) 외 다수	<b>뮤지컬</b> <아가사>(맘마미아)(아이다) <에비타>(시카고)(모차르트) 외 다수  <b>연극</b> <멜로드라마>(이바노프) <엄마를 부탁해>(나는 너다) <그을린 사랑>(국화꽃향기) <피카소의 여인들>외 다수	<b>뮤지컬</b> <미제리코르디아>(더 넥스트 페이지)(키스미 케이트) <미녀는 괴로워>(환타스틱스) 외 다수  <b>연극</b> <맨 프럼 어스>(고공정원) <어른의 시간>(피아프) <억울한 여자>(바나 아저씨) 외 다수		
					
장곡도(신문성)	세르게이(김용호)	선배제작자 외 (송형은)	평론가 외(김기창)	연대장 외(임수빈)	펠라당 외(이형준)
<b>뮤지컬</b> <미스터마우스> <형제는 용감했다> <커피프린스> 외 다수  <b>연극</b> <억울한여자>(30만 원의 기적)(괜찮아) <오아시스 세탁소> <황야의 물고기> <이기동체육관> <염전이야기> <이단자들> 외 다수	<b>뮤지컬</b> <하드락카페>(카테 일)(화선 김홍도) <개떡>(남한산성)  <b>방송</b> <MBC 탐나는도다> <KBS 성균관스캔들> <꽃보다 남자>	<b>뮤지컬</b> <런웨이 비트> <웨딩싱어>(서편제) <벽을 뚫는 남자> <맘마미아>(내 마음 의 풍금) 외 다수  <b>연극</b> <내아내의 모든 것> 외	<b>뮤지컬</b> <두근두근 내 인생> <인당수사랑가> <내사랑 내곁에> <백야>(렌트) <엄마를 부탁해> <서편제>(퀴즈쇼) <내 마음의 풍금> 외 다수	<b>뮤지컬</b> <아우타기>(러브레 터)(화려한휴가) 외 다수  <b>연극</b> <침묵>(세 자매) <아우크레이지> 외 다수	<b>뮤지컬</b> <the play>(이순신) <화성에서 꿈꾸다> <천상시계>  <b>연극</b> <미제리코르디아> <건강한 사람들> <원전유서>(오구) <경성스타>(아름다 운 남자) 외 다수

## 아삭(ASAC)하게 살아보세! 한마당 in 안산

안산 예술인들이 전하는 아삭한 에너지, 따뜻하고 재미있게 즐기세요!

안산문화재단은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순회 추경 지원사업에 '아삭(ASAC)하게 살아보세! 한마당 in 안산'으로 지원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아삭(ASAC)하게 살아보세! 한마당 in 안산'은 6개의 지역단체와 2건의 외부단체 공연을 통해 지역을 소재로 한 공연을 전면 배치하여 지역민의 정주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공연예술단체의 협업을 통한 자생력을 살리면서, 그 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왔던 '우리 뮤지컬의 힘!'과 '도시락 파티' 등의 콘셉트에 맞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밴드 공연으로 구성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안산문화재단은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9월부터 12월까지 총 5회의 공연을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중앙역과 상록수역 광장에서 개최한다.



2015. 9. 11. ~ 12. 16.

공연일	공연단체	공연명	장소
09. 11.	극단 소금창고	뮤지컬 불휘	해돋이극장
10. 21.	극단 동네풍경	허그 스테이션	상록수역 광장 중앙역 과장
10. 28.	극단 결판 풍물패 터주 엄마노래그룹 휘파람		
12. 04.	투비컴퍼니	뮤지컬 갈라콘서트 / 밴드공연	달맞이극장
12. 16.	안녕?! 오케스트라	송년 연주회 - 안녕?! 오케스트라와 춤을	달맞이극장

관람료 : 무료

문의 : 콜센터 080-481-4000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재)안산문화재단

제작 : 극단 소금창고, 극단 동네풍경, 극단 결판,  
풍물패 터주, 투비 컴퍼니, 안녕?! 오케스트라

※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벨루스콰르텟의

## '60분간의 세계일주'

'60분간의 세계일주'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대표적인 음악을 해설과 영상, 사진자료 등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감상하는 음악회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복권기금 문화나눔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기획프로그램 사업인 〈벨루스콰르텟의 '60분간의 세계일주'〉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날짜 : 2015. 12. 18(금) 19:30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주최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주관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후원 : 복권위원회 제작 : 씨오씨  
 관람료 : 전석무료 문의 : 080-481-4000

### 기획의도

1. 전세계 다양한 음악을 클래식 콰르텟의 화음으로 감상해 보는 재미
2. 연주와 멀티미디어(사진+영상)가 결합되어 해당 국가의 이미지, 영상 자료를 통해 이해도를 높인다.
3. 해설과 멀티미디어로 공연의 교육적 효과를 높인다.

### 공연특징

1. 정통 실내악, 클래식 콰르텟의 진수를 다양한 국가의 음악을 통해 경험
2.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이해하는 교육적 콘텐츠
3. 전 연령대에 추천할만한 음악적이고도 쉬운 콘텐츠
4. 해설과 연주, 그리고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

### 프로그램

한국	아리랑-한국민요 (편곡: 최종윤) 도라지-한국민요 (편곡: 김한기)
오스트리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작은별) - W.A.Mozart (편곡: 김한기) Pizzicato Polka - Johann & Josef Strauss
독일	O Tannenbaum - E.Anschutz (편곡: 최종윤) Hungarian Dance No.5 - J.Brahms (편곡: 김한기)
독일 + 영국	Amazing Grace with Bach - J.Newton / J.S.Bach (편곡: Jung In Tak) Lascia Ch'io Pianga - G.F.Handel
영국	Celebrated Chop Waltz (첫가락행진곡) - A.d.Lulli (편곡: 최민선) Salut d'Amour - E.Elgar (편곡: 김한기)
프랑스	Les Miserables - C.M.Schonberg (편곡: 최민선)
아르헨티나	Por Una Cabeza - C.Gardel
미국	Entertainer - Scott Joplin
중국	Chinese Folk Songs - 미상
세계일주	Happy Birthday Variationen - M.J.Hill / P.Heidr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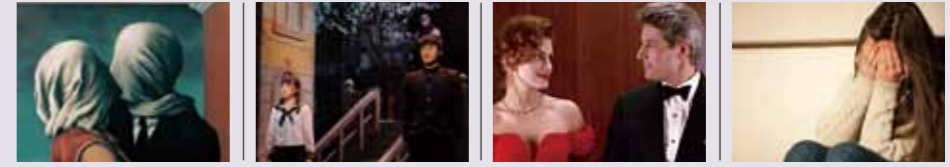


출연진

<p>고진영 (리더 겸 1st바이올린)</p>	<p>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이스트만 음대 석사, Rutgers 뉴저지 주립대학교 박사취득 이화경향, 조선일보, 선화 콩쿠르 1위 Eastman콩쿠르, Rutgers콩쿠르 우승 및 협연 Greece Symphony, NVCC Annandale Symphony, 서울시향 등과 협연 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로 선정 KBS 클래식오디션 및 FM (KBS 음악실) 현재 Solial 오케스트라 악장. 단국대, 예원학교, 서울예고 출강</p>
<p>김정현 (2nd바이올린)</p>	<p>dyllwild Arts Academy, Harid Conservatory 졸업 이스트만 음대 석사 및 박사 (DMA) 뉴욕 Luzerne Music Festival 콩쿠르 우승 JohnF. KennedyCenter, HollywoodBowl, LincolnTheater 연주 MiamiSymphonyOrchestra, SouthwestFloridaSymphony 수석 FM(KBS음악실) 출연</p>
<p>김신희 (비올라)</p>	<p>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디플롬 취득 및 최고연주자과정 (Konzertexamen) 수료 독일 World Chamber 오케스트라, Neues Kammerorchester Düsseldorf 등의 수석 역임 러시아 Volshky 시립오케스트라, 카잔르네상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 현재 Solial 오케스트라 수석. 경희대 강사 출강</p>
<p>송인정 (첼로)</p>	<p>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보스턴 대학교 박사 (DMA) 중앙음악, 이화경향, North Carolina Music Academy 콩쿠르 등 입상 뉴욕 Artist International 오디션 우승 - 카네기홀 독주회 현재 서울솔리스트 첼로앙상블 멤버. 서울대, 단국대, 예원학교, 선화예중, 서울예고 출강</p>

# CULTURE TREND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 28 테마가 있는 미술  
르네 마그리트
- 33 테마가 있는 공연  
무대와 스크린
- 38 테마가 있는 음악  
오페라와 영화
- 43 칼럼  
아동 · 청소년의 적응장애

# 사랑하는 연인들의 엘레지

##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들>



격렬한 키스를 나누는 남녀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키스는 살이 맞닿는 뜨거운 교감이 아닌 숨 막히듯 갈구하는 몸짓일 뿐이다. 서로의 눈빛도 볼 수 없고, 상기된 붉은 뺨을 어루만질 수도 없다. 하얀 베일에 가린 채 서로를 갈망하는 몸짓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옥죄게 만든다.



### 흰 베일에 가린 연인들

벨기에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는 1928년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여러 점 그렸다. 가장 많이 알려진 첫 번째 <연인들>(그림1)에서는 얼굴을 흰 베일로 가린 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열정적인 키스를 나눈다. 하지만 표정을 읽을 수 없기에 어떠한 감정 상태인지는 모호하다.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숨 막히는 감정에 비유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한 모금 숨을 들이마시기도 힘들게 얼굴을 덮어버린 흰 베일은 열정을 넘어 죽음의 공포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참으로 이상한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같은 해에 그려진 동일한 제목의 다른 그림(그림2)

에서는 숲을 배경으로 선 남녀가 뺨을 맞대고 앞을 향한 채 서있다. 역시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이들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마그리트의 그림에서 얼굴을 가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그의 대표작인 <인간의 아들>(그림3)은 사과로 얼굴을 가린 중년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대전쟁>(그림4)에서는 흰 드레스 차림 여인의 얼굴 앞에 보라색 꽃다발을 그려가려놓았다. 이들 역시 표정을 알 수 없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연인들>의 인물들만큼 숨 막히는 죽음의 공포를 연상시키지는 않는다.



- ❶ 르네 마그리트, 〈연인들〉, 1928년
- ❷ 르네 마그리트, 〈연인들〉, 1928년
- ❸ 르네 마그리트, 〈인간의 아들〉, 1964년
- ❹ 르네 마그리트, 〈대전쟁〉, 1964년
- ❺ 르네 마그리트, 〈이미지의 배반〉, 1929년

###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기억

두 연인의 얼굴에 씌워놓은 흰색 베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다. 마그리트는 열세 살에 어머니를 잃었다.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가 한밤중에 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한 것이다. 당시 마그리트는 강으로부터 어머니의 시신이 수습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다고 한다. 마그리트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흰색 잠옷으로 얼굴을 가린 시신이였다. 어머니 스스로 얼굴을 덮고 강으로 뛰어든 것인지, 물결에 옷이 얼굴을 덮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이 마지막 모습은 분명 어린 마그리트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다. 따라서 죽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작가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주며, 작품 곳곳에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인물들을 그려 놓았을 수도 있다. 물론 마그리트 자신은 이를 터무니없는 추측이라고 부정했지만 말이다.

〈연인들〉 속의 인물들과 비교해 사과나 꽃다발과 같은 사물들이 등장하여 얼굴을 가린 인물들은 전형적인 마그리트의 회화 기법인 ‘시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얼굴 위에 놓인 사과와 꽃다발은 논리적 맥락을 벗어나 낯선 장소에 놓인 사물을 보여 주는데 이를 초현실주의 미술에서는 ‘데페이즈망’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들 그림이 상식에서 벗어나 관자에게 당혹스러움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작가의 의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연인들〉은 비논리적 상황의 연출이라기 보다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인상을 주기에 더욱 강렬한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킨다.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깨고 싶으나 깰 수 없는 악몽처럼 말이다.



###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공존

만약 유년시절의 기억에 대한 단상이 아니라면 마그리트는 왜 이러한 그림을 그렸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 그가 동참한 초현실주의 미술의 미학적 특징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인들〉에 나타나는 사랑과 죽음의 이중적 표현은 초현실주의 미술의 전형적인 주제인 에로스(생)와 타나토스(죽음)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생의 충동과 숨 막힘이라는 죽음의 공포, 이 대립적 개념이 서로 공존하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초현실주의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이다.

벨기에에서 태어난 마그리트가 파리로 이주하여 초현실주의 미술운동에 가담한 해는 1926년이다. 그는 브르통, 달리, 미로 등과 친교를 맺으며 이 운동

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나갔다. 따라서 2년 후에 그려진 〈연인들〉 연작 역시 초현실주의 미술의 영향하에 그려졌을 것이다. 사랑에 의해 지탱되는 생의 욕망과 그의 좌절을 상징하는 죽음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함께 묘사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상식을 공격하는 좋은 수단이었던 것이다.

마그리트의 관습적인 사고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연인들〉이 완성된 다음해에 그려진 〈이미지의 배반〉(그림5)이다. 그림에는 하나의 파이프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다. 파이프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파이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슨 속임수인가. 마그리트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일치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제시한다. 하지만 과




연 화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일까. 실상 우리가 보는 것인 그려진 파이프의 이미지 이지 진짜 파이프는 아니다. 즉 마그리트는 그려진 대상과 실재하는 대상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반란, 배신, 전복은 우리로 하여금 쉽게 진실이라고 믿는 상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물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다.

### 베일에 가려진 사랑의 진실

다시 처음의 작품으로 돌아가 보자. 마그리트는 흰 베일에 싸인 채 숨 막히듯 사랑에 몰두하는 남녀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마도 사랑이라는 행위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함이라. 사랑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인 만큼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다. 마그리트의 그림은 사랑을 칭송하는 수많은 관습적 경구들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래서일까.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사랑의 맹목성과 환상에 대한 경고가 느껴진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대상의 실체를 명확히 보고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이 어떤 대상에게 베일을 씌우고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자 베일을 벗기고 실체를 마주하기를 계속해서 유보한다. 또는 운명적 사랑임을 자신하며 환상 속에 머물다가 상대가 베일을 벗고 진실로 마주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감정이 싸늘해짐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이다. 결국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 진실한 사랑에 도달하려면 언젠가는 스스로의 베일을 벗고 상대의 베일도 벗기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민낯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일 테니 말이다. 마그리트의 그림은 사랑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랑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오롯이 현실 속에서 상대를 응시하도록 만드니 그 어떤 수식어로도 더 이상 사랑을 미화할 수는 없다. 그림 속 연인들이 베일 뒤로 감추고 있는 감정은 열정도, 기쁨도, 희망도 아닌 슬픔인 듯 보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 계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 무대와 스크린 ⑤

# 영화 <러브레터>와 연극 <러브레터>



그리운 기억에  
부치는  
편지

1 뮤지컬 러브레터 공연 © (주)PAC KOREA

보통 '러브레터'라 하면 주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주고받는 애정 넘치는 편지를 떠올리게 되지만 이와 이 순지의 영화 <러브레터>에 나오는 편지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러브레터와는 거리가 멀다. 여기 나오는 '러브레터'들은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아예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기엔 어느 러브레터 못지않을 만큼 아련하고 애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지난해 초연되었던 창작뮤지컬 <러브레터> 역시 원작의 이야기를 무대화하면서 무엇보다 이 '편지'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이다.

### 서로 다른 세 가지 러브레터

이와이 순지의 <러브레터>에는 세 가지 형태의 러브레터가 등장한다. 가장 먼저 나오는 러브레터는 여주인공 히로코가 천국에 있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다. 몇 년 전 조난사고로 죽은 연인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히로코는 이츠키의 중학교 졸업앨범에 나온 주소를 찾아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이츠키의 옛 주소로 편지를 한 통 보낸다. 그리고 이 편지가 엉뚱하게도 이츠키의 중학교 시절 동창이자 동명이인이었던 여자 이츠키에게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두 번째 러브레터는 히로코의 부탁을 받은 여자 이츠키가 자신의 학창시절 기억을 더듬어 써내려간 편지들이다. 히로코와 이츠키 사이에 오고가는 이 편지들은 이츠키의 중학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치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소년 이츠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러브레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편지에서 이츠키가 들려주는 중학시절의 추억 대부분은 소년 이츠키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로 이는 소년 이츠키 뿐 아니라 소녀 이츠키 또한

그에게 첫사랑을 느꼈음을 은근하게 드러내준다. 세 번째 러브레터는 영화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독서카드'다. 중학시절 남들이 안 읽는 책만 골라 독서카드에 이름을 적곤 했던 소년 이츠키의 취미는 사실 소녀 이츠키를 생각하며 그녀의 이름을 적어 내려간 러브레터였던 것이다. 전학을 가기 전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드러냈던 소년 이츠키의 마지막 독서카드는 오랜 세월동안 잊혀져 있다가 이제야 진짜 주인에게 도착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러브레터'의 형식으로 쓰여진 편지도 아니고 때론 엉뚱한 수취인에게 전달되거나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주인에게 도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운 이름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그 속에 차마 말하지 못한 애뜻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누군가를 향한 절절한 러브레터들이다. 나중에 히로코가 이츠키의 편지를 다시 되돌려준 것 역시 그 편지들이 모

두 지나간 추억과 잊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이츠키의 러브레터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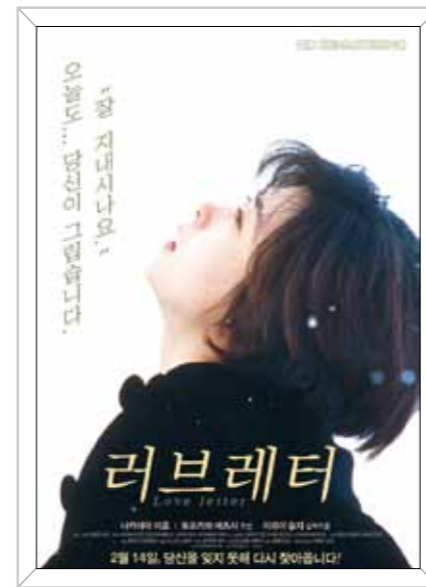
### 글자 뒤에 숨어있는 애뜻한 마음

<러브레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러브레터들은 그 형태나 수취인도 일반적이지 않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러브레터'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미사여구와 뜨거운 애정의 고백은 이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세 가지 러브레터는 모두 '좋아한다'나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한 말들로 채워져 있다.

히로코가 천국에 있는 연인 이츠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단 한 마디 "잘 지내고 있나요?"가 적혀있을 뿐이다. 죽은 연인을 잊지 못해 현재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히로코에게 "잘 지내고 있나요?"라는 한 마디는 "보고 싶다, 그립다, 너를 잊을 수가 없다"는 수많은 말들과 간절함을 꺾꺾 눌러 응축



② ③ 뮤지컬 러브레터 공연 © (주)PAC KOREA



영화 <러브레터> 포스터 - 출처 daum 영화



뮤지컬 <러브레터> 포스터 © (주)PAC KOREA

한 언어나. 이 한 마디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의 절절함은 영화의 후반부, 옛 애인이 죽은 산을 찾아가 똑같은 말을 외치는 히로코의 모습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한편 소년 이츠키의 말 없는 러브레터였던 독서카드에는 오로지 이츠키의 이름만 가득 적혀 있다.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고백한 독서카드 역시 '좋아한다'는 말 대신 소녀 이츠키를 그린 초상화로 마음을 드러낼 뿐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수없이 반복해서 써내려가는 그 행위,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몰래 그려놓는 그 행위에는 어떤 미사여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애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 도서실 안에 보물찾기처럼 가득 숨겨놓은 독서카드에 적혀있는 이름은 모두 "너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하고 반복해서 써놓은 소년 이츠키의 고백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츠키가 히로코에게 보낸 편지에는 중학시절 소년 이츠키의 장난과 그로 인해 불편하고 짜증났던 기억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츠키는 그 시절, 실제로는 자신이 그와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회상 장면 중간중간 비치는 소녀 이츠키의 시선이나 행동은 소년 이츠키 뿐 아니라 소녀 이츠키 또한 그에게 신경 쓰고 있었음을 은근하게 드러내준다.

예를 들어 운동회 때 자기도 모르게 소년 이츠키를 쫓아가던 이츠키의 카메라 시선이랄지, 이츠키가 전학 간 사실을 알게 된 뒤 갑자기 꽃병을 깨뜨리는 행동은 모두 소녀 이츠키의 마음을 조심스레 드러내는 장치들이다. 현재 이츠키가 시립도서관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설정 역시, 도서실에서 그와 함께했던 추억이 이츠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다.

이렇듯 <러브레터>에 등장하는 세 가지 '러브레터'들은 모두 '사랑한다'는 말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말하지 못한 혹은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절하고 아름다운 '러브레터'들이다.

###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무대

창작뮤지컬 <러브레터>는 영화 <러브레터>의 섬세한 감정과 이미지들을 무대언어로 새롭게 써 내려간 작품으로 특히 무대공간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교차시키는 방식이 매력적이다. 영화에서는 히로코와 이츠키의 편지를 시작으로 이야기의 배경이 과거로 돌아가는 데 비해 뮤지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공간 속에서 엇갈리며 교차하는 시간을 펼쳐놓았다. 벗어나기가 드리워진 중학시절의 교정과 추억이 담긴 도서실이 과거의 공간이라면 이 사이에 위치한 이츠키의 집과 그 앞에 놓인 빨간 우체통은 현재의 시간이 흘러가는 공간이다.


영화에서처럼 뮤지컬에서도 히로코와 이츠키는 한 명의 배우가 1인 2역을 소화한다. 다만 이츠키에 더 무게를 두었던 영화와 달리 뮤지컬 <러브레터>에서는 이츠키의 과거와 히로코의 현재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므로써 두 인물의 존재감을 비슷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이를 위해 히로코의 현재 연인인 아키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극에 개입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이 작품은 편지를 통해 누군가는 상처를 치유해가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과정을 무대 위에 평행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화에 섬세한 감성을 더해주었던 O.S.T 음악 대신 뮤지컬 <러브레터>에서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등 클래식한 악기 편성의 연주와 노래를 통해 더 풍부하고 극적인 감정을 전달한



① 뮤지컬 <러브레터> 포스터 © (주)PAC KOREA.

다. '첫사랑의 그림자', '되찾은 시간', '벚꽃' 등 주요 넘버들은 은은하게 흐르는 선율과 함께 인물의 감정을 잔잔하게 담아낸 가사를 통해 극을 서정적으로 이끌어간다. 아름다운 영상 속에 은유적인 암시를 곳곳에 심어놓은 영화와 달리 뮤지컬 <러브레터>는 구체적인 장치와 주변 인물들의 목소리를 빌어 극 속에 등장하는 '러브레터'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낸다. 무대 중심부에 위치한 새빨간 우체통은 히로코와 이츠키의 편지가 오가는 창구가 되어주면서 두 여인이 편지를 통해 각기 사랑의 상처와 잊어버린 기억을 회복하는 모습에 방점을 찍어준다.

또한 마지막에 후배들이 찾아온 독서카드의 그림을 클로즈업시키며 밝혀졌던 영화 속 진실이 뮤지컬에서는 이츠키의 노래로 대체되면서 독서카드가 바로 이츠키의 러브레터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전한다. 이렇듯 뮤지컬 <러브레터>는 '편

지'라는 장치를 적극 사용하면서 극중 편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영화의 기억을 희미하게 간직한 관객들에게 다시 한 번 그 감성과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 역시 오래된 기억에 부치는 한 통의 '러브레터'라 할 수 있을 듯하다. 

###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오페라와 영화 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영화 <귀여운 여인>



개리 마샬의 영화 <귀여운 여인>(1990)은 백만장자 남성과 거리의 여인이 신분을 초월하여 참된 사랑과 행복을 확인하는 과정을 그린 '신데렐라 스토리'의 히트작이다. 풍부한 재미, 달콤한センチ멘털리즘, 적절히 사용된 음악이 어우러져 멋진 해피엔딩을 이끌어낸 수작이며, 당시 23세의 줄리아 로버츠를 단숨에 미국 최고의 슈퍼스타로 끌어올린 점도 신데렐라 스토리의 공식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귀여운 여인>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1853)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오페라를 관람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은 물론 여주인공 비비안의 캐릭터도 오페라의 주인공 비올레타로부터 따온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은 점 이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한층 흥미롭다.



①, ② 영화 귀여운 여인 - 비비안과 에드워드  
③ 영화 속 길거리 후커 차림의 비비안

거리의 후커 vs 코르티잔

<귀여운 여인>의 남자 주인공 에드워드(리처드 기어)는 재정위기에 빠진 회사를 인수해서 정상화시키거나 분해해서 되파는 M&A 비즈니스로 큰돈을 모은 중년의 사업가다. 그러나 첫 아내와는 이혼했고 지금 동거중인 여자와도 곧 헤어질 위기에 놓여있는 등 사생활은 행복하지 않다. 뉴욕에서 거주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모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 차 로스앤젤레스에 온 에드워드는 파티에 참석했다가 부하 변호사 필립의 차를 빌려 타고 투숙 호텔로 가던 중에 길을 찾지 못해 당황한다. 이때 손님을 낚아채려고 기다리던 거리의 여인 비비안(줄리아 로버츠)이 차에 올라타더니 길을 가르쳐 준다. 매춘부임에도 한없이 순진무구한 면이 있는 비비안에게 신선함을 느낀 에드워드는 호텔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그녀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지만 창녀라고 막 대하지는 않는다. 다음날 모스의 창업주가 면담을 요청하자 에드워드는 아름다운 여성을 대동하는 편이 이미지 관리에 좋을 것이라는 필립의 조언에 따라 비비안에게 일주일 동안 여자 친구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3,000달러라는 돈에 매혹되어 제안을 수락한 비비안은 에드워드의 동행자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비싼 드레스를 사기위해 로데오 거리에 갔다가 그녀의 직업을 넘겨짚은 점원으로부터 천대를 받자 호텔 지배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지배인은 호텔의 명성과 VVIP급 투숙객 에드워드의 품격을 지켜주기 위해 비비안의 숙녀 수업에 최선을 다한다.

영화에서는 길거리 후커지만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인공 비올레타의 직업은 코르티잔(courtesan)이다. 영어사전에 “부자나 귀족을 상대하는 고급 창녀”라고 설명된 것은 상당한 오해가 깔린 것이고, 19세기 파리의 코르티잔은 결코 창녀라고 부를 수 없는 특별한 직업군이다. 산업혁명으로 근대적 부르주아 계층이 급속히 두터워지던 시기에 벼락부자들은 조강지처를 둔 채 다른 여자를 숨겨두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게 일반화되었다. 여인으로서의 매력을 잃은 본처 입장에서는 돈이 넘쳐나는 남편이 젊고 예쁜 애인을 두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었지만 첩이 낳은 사생아에게 재산까지 나눠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회적 필요와 합의하에 제도적인 직업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19세기 프랑



- ④ 근대적 코르티잔의 원조로 불리는 왕의 여인 마담 퐁파르
- ⑤ 소설의 원작자인 아들 뒤마 피스
- ⑥ 소설과 오페라 주인공의 모델인 마리 뒤플레시스
- ⑦ 라트라비아타 작곡 당시의 베르디
- ⑧ 영화에 등장하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하우스 일명 War Memorial Hall
- ⑨, ⑩ 귀여운여인/런어웨이 브라이드 영화 포스터

스의 코르티잔이다. 코르티잔은 후원자로부터 의식주 일체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 기간 동안 연인 역할을 하는 여성이다.

첩과 구별되는 점이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후원자가 일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싫증이 나면 언제라도 후원을 그만둠으로써 일종의 계약관계가 끝난다는 점이다. 코르티잔 입장에서 더 좋은 조건의 후원자가 나타나면 기존의 후원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니 공평한 면이 있었다. 또한 숨겨놓은 여인이 아니라 공개적인 애인이라는 점도 첩과의 차이점이다. 부유한 남자가 코르티잔을 애인으로 둔다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과시의 의미였다. 공연장에, 전시회에 데리고 다녔으며, 코르티잔은 교양을 쌓는데 열중해야 했다. 또 화려한 파티를 열고 자기의 동료들과 그 후원자를 초대하여 사교클럽처럼 만들었다. 때문에 유명한 코르티잔을 후원하려면 굉장히 큰돈이 필요했다. 비올레타의 모델인 실존 코르티잔 마리 뒤플레시스의 경우 1년에 10만 프랑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날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15억이 넘는 막대한 액수다. 물론 생활비만이 아니라 고급저택의 임차료, 파티 개최 비용이 포함된 것이지만 그 후원자가 얼마나 부자여야 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즉 일급에 속하는 유명 코르티잔은 적어도 젊고 아름다운 동안에는



귀족부인이 전혀 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첩과 다른 또 하나의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후원자의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었다. 사생아에 대한 재산분배의 문제가 코르티잔을 제도화한 중요한 배경의 하나였음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문제는 19세기 프랑스의 코르티잔이 워낙 특별한 현상이었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귀여운 여인>의 비비안을 비올레타의 현대판이라고 설정한 것도 미국 영화가 잘못 이해한 명백한 한계다. 코르티잔은 결코 정숙하지 않았고 후원자도 자주 바뀌었지만 창녀가 아니라 당시 파리 남성들의 로망이요, 굳이 찾자면 대중에게 익숙한 연예인 비슷한 존재였다.

### 로맨틱 코미디 vs. 멜로드라마


<귀여운 여인>에서 에드워드는 비비안과 지내는 동안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한 인간미에 끌린다. 기업인수 건을 진행하면서 에드워드가 “나는 사업에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말하자 비비안은 “마치 로봇처럼 일하는군요.”라고 일침을 가하여 에드워드가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에드워드는 인수대상 회사를 살리기로 결심하고 오히려 동업을 제안해 회사 측을 감격시킨다. 비비안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 내면의 아름다

움까지 발견한 에드워드는 그녀를 자가용 비행기에 태워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샌프란시스코 오페라하우스로 데려 간다. 처음 보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비비안의 모습에 에드워드는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덧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가고 비비안은 자신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에드워드 곁을 떠나야 한다. 대신 몸 파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 못 마친 고등학교 학업을 계속할 결심을 한다. 바로 그 순간! 뉴욕으로 돌아가려던 에드워드가 호텔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비비안의 거처로 다가오고 있다. 점점 가까워지자 에드워드는 승용차의 창문을 열어놓고 <라 트라비아타>의 사랑의 테마를 거리가 떠나가도록 크게 틀어 놓는다. 훌륭한 해피엔딩이다.

<라 트라비아타>는 그렇지 않다. 후원자의 손길을 마다하고 파리를 떠나 3개월 동안 알프레도와 행복한 동거 생활을 한 비올레타는 연인의 부친 제르몽이 나타나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자신을 희생한 채 파리 사교계로 돌아간다. 그러나 알프레도는 거의 모든 테너가 그렇듯이 사태의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비올레타에게 양갈음할 생각만 한다. 그래서 파티장의 모든 참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비올레타를 공개적으로 모독한다. 원래 깊은 폐병이 있었던 비올레타는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 더욱 이른 죽음을 맞는다. 물론 최후의 순간에 모든 곡절을 안 알프레도가 달려오지만 너무 늦었다. 안타까운 새드 엔딩이다.

이처럼 영화 <귀여운 여인>과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장르 자체에 있다. <라 트라비아타>는 물론 작가와 코르티잔 마리 뒤플레시스의 짧은 연애담에 근거를 둔 알렉산더 뒤마 피스의 원작 소설 <동백꽃의 여인>은 비극적인

멜로드라마인 반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인 것이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 세리아'를 비극 오페라로 알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용어는 진지하게 흐르다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바로크 스타일의 오페라를 가리킨다. 오페라 세리아는 19세기 이후에 현저히 약화되더니 베르디의 선구자인 벨리니, 도니체티 시대에 이르러 비극적인 엔딩을 지닌 멜로드라마로 바뀐다. 베르디 역시 자신의 오페라 대부분을 멜로드라마라고 불렀다. 반면 로맨틱 코미디는 20세기에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성격이 확립된 비교적 새로운 장르다. 그 이야기 구조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두 남녀가 만나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잘 맺어진다는 얘기다. 오페라로 치면 도니체티의 <사랑의 묘약>이 로맨틱 코미디의 이야기 구조를 닮았지만 오페라 분류법으로 보면 파스토랄, 즉 전원풍의 소극(笑劇)에 해당한다.

<귀여운 여인>이 <라 트라비아타>에 대한 제대로 된 오마주가 되려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남자도 에드워드의 부하 변호사 필립이 아니고, 에드워드 회사의 창업자쯤 되는 사람으로 그 부친을 등장시켜야 했다. 그러면 오페라의 일반적인 공식과도 비슷해지고 누구나 더 명확하게 <라 트라비아타>를 떠올릴 수 있었으리라. 물론 그것만으로 코르티잔의 의미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글 유형 중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 아동 · 청소년의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이해와 집단음악치료프로그램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 생텍쥐페리

##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현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사람들은 분노, 좌절,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증상에 시달리게 되며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흔히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으로는 성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많으며, 아동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이혼, 학교생활의 변화, 즉 학교생활에서 전학이나 진학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중 위축, 공격적인 행동, 불면, 식욕감퇴 등의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형제자매의 출생, 부모의 실직이나 학대 또는 방임 등이 포함되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도 취약하다. 이런 다양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증상이나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 적응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가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모든 반응적 증상을 통칭하지는 않는다. 적응장애의 진단은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개체의 행동이나 정서 또는 신체적 증상이 반드시 기대되는 정도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할 경우에만 내려진다. 즉 사회생활이나 주어진 업무에 적응하는 기능들이 심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적응장애를 보인 사람의 경우 단순히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만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체의 심리적 취약성도 발병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의 심각도 외에도 다양한 개인의 선호도, 취약성, 지지 체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기준과 가치 및 신념 등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물론 하나 이상일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지속 가능성이 있다. 개체가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 전체에 가해지는 자연재해나 민족적·사회적·종교적 박해 등도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적응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 취업, 진급, 결혼, 출산 등과 같이 특정 발달 단계와 연관되어 적응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 발달 과정에서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일련의 방어기제(defense mechanism, 자신을 보호하는 무의식적 정신 작용)를 형성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미성숙한 방어 방식을 가질 수 있고, 이 경우에 상실, 결별, 경제적 손실 같은 어려움에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유아기에 경험한 부모와의 양육관계도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유전적인 요인도 스트레스 후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증상은 보통 스트레스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진 후 6개월 이내에 증상도 소실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사회 표본 적응장애의 유병률은 약 2~8%로 추정되며, 성인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지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 남녀 유병률은 같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개 아동 및 청소년은 정서적 증상 또는 행동적 증상에 치우치기보다 이들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청소년에게서 가장 흔히 진단되고, 혼자 생활하는 여성이 가장 적응장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응장애는 정신과 의사의 상담과 심리검사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을 내리는데, 진단기준은 먼저, 정서상 또는 행동상의 증상들이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며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 또한 증상이나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하며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보다 훨씬 현저한 고통과 사회기능에서의 심각한 손상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원인이 사라지면, 증상 또한 이 후 6개월 안에 소멸되어야 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중에 주요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행동장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응장애에 우선해서 진단하며, 관계인물과의 사별이나 이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사회적, 직업적 기능 저하는 정상적인 애도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적응장애로 진단하지 않는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적응장애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출현한다고는 하지만, 체질상의 영향, 발달적 영향, 환경적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것이거나, 또는 개인의 생태 환경에서 형성된 특정 보호 요소들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태학적인 관점은 지속적인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와 보호적인 영향들이 생태환경의 어느 영역에서든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삶에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Waller, 2001). 따라서 범지역적인 네트워크로 발달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욕구에 적합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독립과 자아정체성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여러 요인들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예방으로는 특히 증상 발발 초기에 직면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극한 예로,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이혼이 거론되는 초기에 이혼사례의 경우에 따른 교육과 가족상담, 가족해체 과정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초기 개입으로

적응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학적 상태에 관한 의사소통과 교육제공은 질병 자체의 조건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른 부가적인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을 예방해 준다.

## 집단음악치료프로그램법

집단음악치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션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악기연주(능동적 음악치료) 또는 음악 감상(수용적 음악치료)과 상담(피드백)으로 이루어진다. 북이나 간단한 타악기로 특정한 규칙이나 형식 없이 즉흥적으로 집단이 함께 연주를 하더라도 신체 생리적으로 자연 살해세포(Bittman et al., "Alternative Therapies," January, 2002)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역전시키는 결과를 얻는다. 이런 집단즉흥연주는 근본적인 사회적 행동으로서 인종, 문화, 사상과 이념을 떠나 순수한 사람 간의 마음을 연결해 주는 감정을 정화시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교류하는 매우 사교적이고 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타악기즉흥연주과정에 생산된 음악은 우리의 내면에 잠재된 리듬을 일깨워 사람들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표현의 향상 및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면서 정체성 확립과 본연의 역할을 자각하고 스스로 심신 조절능력을 깨달아 환경 안에서 개체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타악기 연주는 집단음악치료에서 특히 자주 이용되는 연주 형태<sup>1)</sup>이다.

1) 자세한 집단연주형태는 하늘다리 vol.48~50호 참조

타악기 연주는 집단음악치료에서 특히 자주 이용되는 연주 형태로 자세한 집단연주형태는 하늘다리 vol.48~50호 참조이다. 공동 연주의 장점은 개인의 연주가 집단 안에 파문처럼 쉽게 돌출되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 때문에 개인연주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된다. 연주가 시작되어 그 소리가 치료실 공간을 채우게 되면 구성원은 자신이 생산해낸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짐으로써 자신과 공간의 화합을 경험하게 되어 낯선 공간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다 함께하는 연주로 집단 응집력을 가진(그림1)공동 생산 연주 형태를 체험하게 되면 개체의 불안은 경감하고 스트레스로 얻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긍정적 승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소개하자.

먼저 아래의 프로그램카드(표 1)는 (그림1)의 집단 공동생산연주형태를 띠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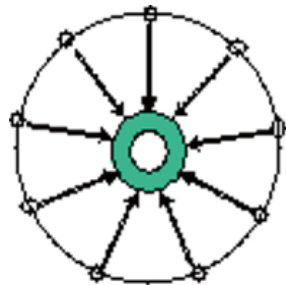


그림 1. 공동 생산 연주 형태

[Tempo & Dynamic]이란 제목으로 작성되었는데, 표에서 보듯이 집단에게 카드를 제시한 후 숫자를 지시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음악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숫자 1의 위치는 비교적 느리고 조금 크게(세게)연주하게 되며, 숫자 3의 경우는 여리지만 빠르게 연주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

간다. 진행 초기에는 개인에 따라 빠르기와 세기의 편차가 크지만 점차적으로 집단 안에서 차이가 줄어들며 적응력과 집단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적응 장애를 갖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주 호소문제나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돌출된 특성문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인 성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력이나 통합이외에 균형이나 정화나 감정해소를 목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1. 집단 프로그램 치료카드

Tempo & Dynamic	준비물 여러 가지 타악기. (오르프 악기)
목적: 적응 및 통합	출처: HJS음악치료 발달연구소

아래 제시된 프로그램카드(표 2)는 (그림 2)의 좌-우 목걸이 식 연주형태이다. 목걸이 식 진행이란 집단의 한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이나 우측 방향으로 돌아가며 연주하는(그림 2) 좌-우 목걸이 식 연주 형태를 말한다.

이 형태는 성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갖도록 여지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서서히 개방하도록 도와주며 구성원간의 친밀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처음 시작하는 연주자는 빠르거나 리듬의 성격을 결정하고 일련의 지속적인 리듬을 연주한다.



그림 2. 좌-우 목걸이 식 연주형태

표 2. 임상 적용 치료 카드

조 화	준비물 여러 가지 타악기. (오르프 악기)
목적: 자아-타인인식, 공동체의 식함양	출처: HJS음악치료 발달연구소

그 다음 성원은 첫 주자로 연주한 리듬에 맞추어 연주한다. 성원들의 취향에 따라 음악적 흐름의 주도권을 서로 이양하며 조화롭게 연주하도록 한다. 두 명의 연주자가 서로 잘 섞여 연주가 진행될 때, 그 다음주자인 제 3주자가 둘의 연주에 끼어 함께 세 명이서 연주한다. 세 명의 연주자가 함께 조화로운 연주가 진행되면 처음 연주를 시작했던 첫 주자는 빠지면서 제 2주자와 제 3주자가 남아 둘이 호흡을 맞추어 간다. 이 둘의 연주가 처음과 마찬가지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제 4주자가 개입하여 조화를 꾀한다. 이런 식으로 2명과 3명의 연주가 목걸이 식으로 돌아가면서 진행된다. 보편적으로 볼 때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적 인식과 우리로 확장 또는 반대로 축소의 경험을 토대로 주변의 환경으로 인식력을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도 물론 주자를 늘려가는 방식이나 음악적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하며 응용할 수도 있다. 집단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많은 변형을 이룰 수 있다.





아래 (그림 3)에 제시된 솔로와 투티(독주와 합주)의 연주형태는 일반적으로 재미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적응장애를 갖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공통사항인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 형태는 또한 집단의 역동성이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억압된 스트레스의 원형들이 그대로 표출되기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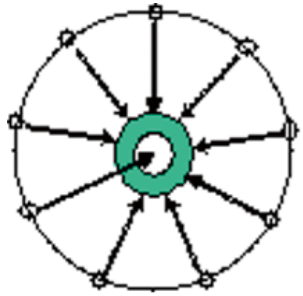


그림 3. 솔로와 투티연주 형태

표 3. 임상 적용 치료 카드

점 령	
<p><b>방법</b> : 1. 그룹 전체는 각자 가능한 한 조용하게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연주를 한다.</p> <p>2. 공동 연주 과정 중에 구성원들은 순서에 관계없이(또는 치료자나 선행주자의 지령 및 규칙에 따라) 단 한 사람만 약 2초간 두드러지게(크거나 빠르거나) 연주하면서 집단의 전경에 나설 수 있다. 즉 그룹의 중심을 강하고 빠른 음악적 요소로 2초 동안 점령하는 것이다.</p> <p><b>예상</b> : 먼저 중심을 점령한 구성원이 2초 뒤에 배경으로 물러나면 또 다른 구성원이 전경에 나서려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은 서로 점령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들어갈 틈을 관찰할 것이다.</p> <p><b>규칙</b> : "2초"의 연주시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중간 중간에 몇 번을 참여하든 관계없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점령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구성원들 모두가 한번씩은 점령을 위한 두드러진 연주를 해야 한다.</p>	<p>준비물</p> <p>여러 가지 타악기, (오르프 악기)</p>
<p>목적: 순발력과 개방</p>	<p>출처: HJS음악치료 발달연구소</p>

형태를 간단히 소개하면, 공동연주-솔로연주-공동연주 식으로 공동 연주 중간에 독주가 이루어진다. 구성원 중 한 개인이 리듬을 연주하면 그 제시된 리듬을 집단이 받아 공동으로 그대로 메아리치듯 되받아 연주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표 3)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은 집단을 배경으로 자신을 중심에 부각시키는 형태로 2초간 연주의 기회를 얻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초의 시간은 개인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 가치가 다르다. 곧 집단의 상황에 따라 길게도 아니면 너무 짧게도 여겨질 수 있다. 이렇듯 시간을 요소로 하여 재미와 긴장을 유도하며 자발성과 능동성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응용해 낼 수도 있다.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 이용할 수 있는 역동적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다. [함께]란 제목으로 자신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집단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던 억압된 감정들이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사가 집단대상자들을 비롯한 치료환경에 보다 주의 깊게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 진행되면 개인에게 오히려 또 다른 스트레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단계적으로 성숙되지 못해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쉽게 알려진 동요나 민요, 가요나 팝송을 이용하여 개인과 단체가 소절별로 나누어 부르며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진실한 내면의 개방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 글 하 준 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 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교수와 'HJS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 REST (쉬어가는 곳)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대부도  
정문규미술관

누구나 작가가 된다

# 삶의 換氣, 그리고 정문규미술관 그렇게 심을 더하다

어제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내일로 연결되어지듯  
대부도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다.  
또 그 터 안에 가만히 자리한 채  
또 다른 향기를 피워내는  
정문규미술관은  
대부도의 풍부한 표정에 자신을 더한다.

〈대부도를 마음에 담다〉 - 안산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 관광의 도시, 안산...!

〈하늘다리〉가 안산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대부도를 마음에 담다〉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대부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해솔길, 바다, 풍차, 테마파크, 중생대 공룡발자국 화석 등,  
한 번 찾아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이다.  
여기에 다양한 볼거리 또한 충분한데, 알고 가면 더욱 좋은 곳, 4개 장소를 소개한다.

### 글 읽는 순서

- ① 유리섬(Glass Island)
- ② 동주염전
- ③ 정문규미술관
- ④ 종이미술관



정문규 미술관에서 바라본 대부도의 낙조

대부도가 사랑스러운 이유, 그것은 아마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만들어 내는 삶의 이야기 때문일 것. 그리고 그 안에 가만히 자리 잡은 채 또 다른 향기를 피워내는 정문규미술관은 대부도의 이야기에 기억을 더한다.

### 아득한 그 터 안에 미술관

대부도 낮은 갯벌의 속살을 이곳이 바라다볼 수 있는 백발 노화백의 꿈터 정문규미술관. 시리도록 아름다운 서해 노을로 유명한 탄도항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정문규미술관은 서양화의 거목 정문규 화백이 직접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으로 여느 도시 내 미술관들과 자못 다른 모습이 인상적이며, 그 쓰임새도 분명 다름이 있다.  
대부도 자연과 어우러진 그곳에 가만히 서서 멀리 바라다보니 여전히 미생인 나의 삶이 뒤척거려진다. 마치 어릴 적 놀이터 흙바닥에, 작은 나뭇가지로 제목 없는 그림을 그려내듯 그렇게 말이다. 그리고 보니 정문규미술관은 여전히 성장 중이다. 무릇 노화백이 꿈꾸는 캔버스의 완성된 그림처럼.



이 미술관이 가지는 특이함은 1층 카페 아르페지오에 들어서면서부터 충분히 인지된다. 진한 커피향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클래식 선율이 커다랗고 고풍스러운 스피커를 통해 그 울림을 전하기 때문. 이 같은 풍경은 어떤 이들에게는 설렘을, 또 다른 이들에게는 신선함과 낯섦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이, 아득한 아늑함을 그대로 선물한다.

### 아날로그를 기억하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폭풍같이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에 이끌려 정문규 화백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오디오기기들을 하나둘씩 살펴본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웅장한 크기의 스피커와 그 옆의 이런저런 기기들은 마니아들을 흥분시키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그리고 이내 다시 커피향 따라 주변을 살피니 조금 전까지 보지 못

했던 벽에 걸린 작품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는데, 정문규 화백의 작품세계를 앞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처럼 정문규미술관은 미술작품들 외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여행자들로부터 아날로그적 감성을 일깨워준다.

그렇게 정문규 화백의 지극한 개인적 취향과 작품세계를 잠시 맞본 후 본격적인 전시관 관람을 위해 전문 큐레이터에게 전시실 안내를 요청해본다. 전시실 관람 시작 전 큐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카페 입구에 비치된 도록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정문규 화백의 63년 미술세계를 어렵게나마 짐작해보는 것도 이 미술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 서두름 없이 천천히

이 미술관은 현재의 쓰임새 이전에 해수목욕탕으로 사용되었던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니 내부와는 다른 건물 외관이 낮익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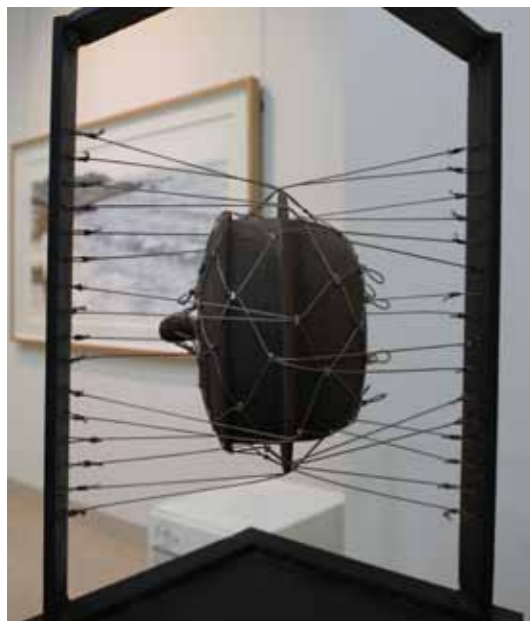
하다. 어찌되었건 현재의 주인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향후 정문규미술관의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지역사회의 스토리텔링을 더하는 재미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그렇게 잠시 지난 역사를 듣고 난 후 큐레이터의 안내에 따라 2층에 위치한 제1전시실로 발길을 옮겼다. 지난 2011년에 기획 전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아직도 우리는 현역이다 展’의 연장인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전시 중이다. 이 기획전시는 한국미술 1, 2세대인 원로 중진 50여명의 작가들을 초대해, 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함으로써 미술계의 커다란 반향과 관심을 일으켰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이어진 3층에 위치한 제2전시실 관람. 정문규 화백이 오랜 산고 끝에 탄생시킨 그간의 작품들이 봄날 새색시의 수줍은 미소마냥 여행자를 반긴다. 강렬하면서도 동양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들로 가득한데, 그야말로 눈이 호강이다. 그렇게 모든 관람이 갈무리되어갈 즈음 비밀의 정원인 정문규 화백의 작업실 방문을 제의 받았다. 역시나 오래된 오디오가 자리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책장마다 빼곡히 채워져 있는

서적들이 함께 어우러져 노화백의 취향을 대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이 작업실의 꽃은 그의 작업공간으로 미완의 작품들이 그와의 교감을 가능케 한다.

###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소통 통한 새로운 가치의 재생

정문규미술관은 그 이력만큼이나 다양한 이벤트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그중 하나가 지역주민들이 클래식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평균 월1회에 가까운 횟수로 열린다. 미술관 주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난생 처음으로 접하는 클래식이라는 문화경험을 통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느낌이었다.”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미술관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이 있다. 미술관측은 대중음악의 획일적이고 편협함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자신들의 꿈을 보다 넓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이 프로젝트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이 지역사회와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진행에 있어서 고충도 수반된다. 모든 비용의 지출이 순수하게 미술관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료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이야 하지 않아도 그만이었지만, 미술관 존립의 목적을 지역사회와의 공생과 그를 통한 문화의 새로운 가치 재생에 두고 있기에 결코 멈출 수 없다.


### 한국 서양화의 거목 정문규 화백은

평론가들은 정문규 화백의 작품을 크게 3기로 나누어 구분한다. 1기는 청년시절인 50~60년대로서 이때의 경향을 추상미술로 평가한다. 당시 앵포르멜(informel)적과 반아카데미즘적 경향이 밀려들어오던 시기로 정문규 화백은 이 같은 미술 사조를 한국적 토속성과 결합시키면서 ‘입체과 추상’ 작품에 몰입하게 된다.

다음 2기는 정문규 화백의 인생전환기로 평가되는 1992년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작품 또한 어둠과 괴로움을 대변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3기, 다시 투병 기간이었던 5년여가 지나 스스로 건강을 회복한 후 캔버스와 마주한다. 이때 기존과 다른 활기찬 색감과 생생함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쏟아내게 된다. 그 주체가 된 소재는 자연으로, 여느 서양화가들로부터 느끼기 어려운 지극히 동양적인 붓질이 인상적이다.

### Epilogue,

#### 시린 겨울에 만난, 그 따스함

대부도 여행 중 가장 아날로그적이면서도 마음 따뜻했던 소중한 시간임이 분명했습니다. 마을과 어우러진 작은 언덕에 위치한 낯익은 건물의 모습도 그렇고, 그 언덕에서 바라다 보이는 겨울날 오후의 시리도록 아름다운 낙조도 그러했습니다. 미술을 몰라도 음악을 몰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겨울을 가만히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정문규미술관에서 잠시 쉼을 더해보세요. 

#### Travel Tip

- 정문규미술관 <http://www.chungmuseum.org/>
- 문 의 : 032-881-2753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153-9
- 운영시간 : 평일 | 11:00~19:00  
주말 및 공휴일 | 12:00~18:00
- 휴 무 : 매주 월요일

# 누구나 작가가 된다

## 사진, 寫眞, PHOTOGRAPHY

사진, 꽤나 다루기 까다롭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사진을 찍고, 보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

굳이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힘겨워할 필요가 없어졌음은 물론,

다양하고 흥미로운 관련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누구나 전문가 못지않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도 있다.





### 진화 그리고 융합

보통 사진은 암막에 가둬진 어두운 카메라의 벽면에 투여된 빛을 잡아내는 기계적 장치와 그 그림자를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적 존재에 대한 현실적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근대 예술에까지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진이 발명될 당시 미술계는 르네상스의 원근법을 기틀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이라는 새로운 과학적 장치를 통한 미디어 아트 등장하면서, 사실적이고 체계적 재현수단이었던 르네상스 장르에 탈 르네상스라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이는 인상파라는 새로운 예술의 탄생을 부추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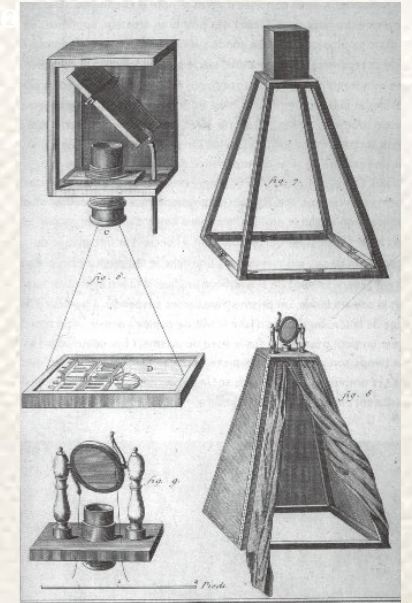
다시 말해 미술가들은 사실적 기반의 활동에서 예술가적 시선으로 사물을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결국 오늘날의 대중매체와 예술의 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집착과 집중의 결실,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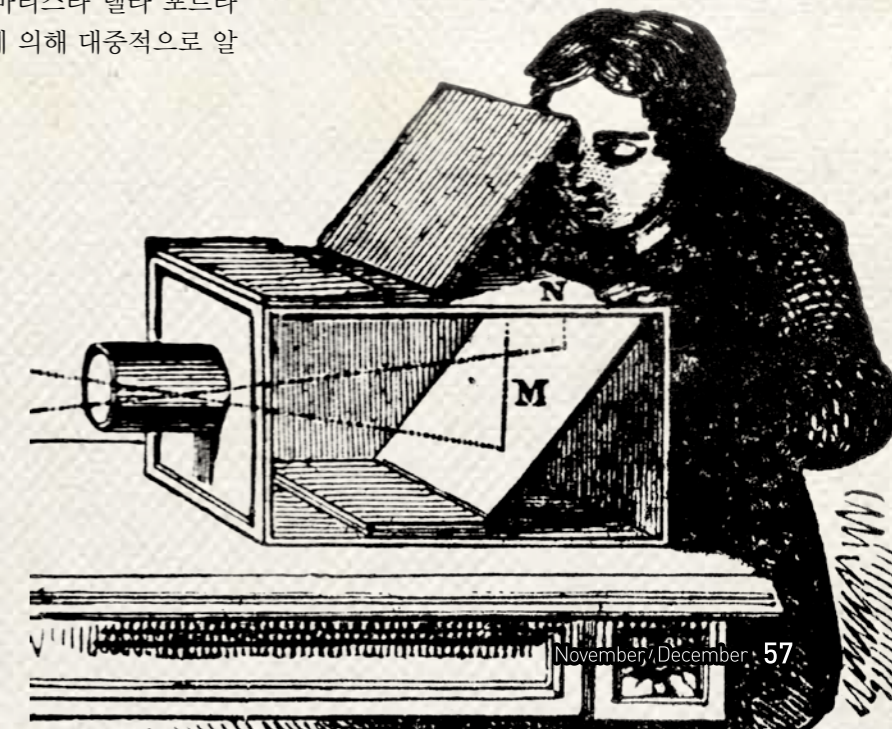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내는 빛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바로 르네상스기의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이용했던 도구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가 그것이다. 'Obscura'는 어둠을 'Camera'는 방을 뜻한다.

이 원시적인 도구는 발명 초기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이 투명한 종이나 격자 그물망에 비춰지고 예술가들은 그 비춰진 상을 화폭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는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BC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핀홀 상의 방법론'에도 그 원리가 기록되어 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는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리를 이용한 보다 구체적인 원근법을 발표한다. 이처럼 보다 효과적으로 원근법을 표현하기 위한 집중과 집착이 오늘날의 카메라와 사진이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후 16세기 이탈리아 과학자 지오바니 바티스타 델라 포르타(Giovanni Battista della Porta)에 의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Camera Obscura



### 시간을 담기 위한 두 남자의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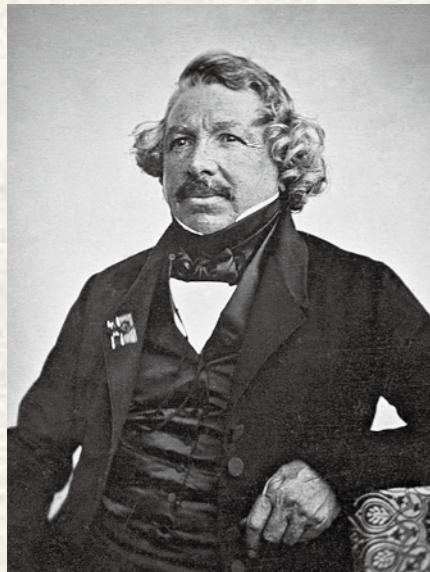
예술가들의 집착과 집중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던 카메라를 이용해 최초의 사진을 만들기 위한 두 남자의 고집스런 열정은 오늘날까지 기억된다. 프랑스의 조셉 니세포르 니엡스(Joseph Nicéphore Niepce)와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가 그 주인공으로 조셉 니세포르 니엡스는 1826년 세계 최초로 사진촬영을 성공시킨 인물이며, 루이 다게르는 디오라마 화가로 활동하던 화가겸 오페라하우스의 무대화를 제작하던 감독으로 유명세를 떨치던 인물이다.

이 두 남자는 같은 뜻을 품고 1829년 10년간 공동연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돌입하였으나 4년이 지난 어느 날 조셉 니세포르 니엡스의 사망으로 인해 루이 다게르 홀로 연구에 몰입한다.



Joseph Nicéphore Niepce


그 결과 요오드화 은의 감광법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네거티브 화상을 얻게 됨과 동시에 조셉 니세포르 니엡스가 발명한 헬리오그래피(heliography)를 거듭 발전시켜, 1837년에 다게레오타입(daguerreotype)이라는 독자적인 사진현상 방법을 발명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던 디오라마 극장이 화재로 인해 전소되면서 파산이라는 역경을 겪은 뒤 프랑스 정부에 특허를 판매하고 이후 사진현상술이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된다.



Louis Daguerre

### 한국의 사진역사의 발단

사진은 발명지인 유럽에서 포토그래피(Photography)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세계적인 공통어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물의 외적 측면과 내면의 정신을 동시에 강조한 전신(傳神) 철학이 담긴 사진(寫眞)이란 용어로 정의했고, 개화문물로서 정착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사진이 발명된 후 40여 년이 지난 1880년대로서,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서구문물에 다소 보수적이었던 문화의 차이로 해석된다. 또한 사진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은 1860년경 동지사언사로 중국에 갔던 이익익(李宜翼)과 일행들로서,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러시아인의 사진관에서 초상사진을 촬영한 이후라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진을 찍은 인물들로도 기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진의 도입에 대한 자료는 여전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성순보 1884년 잡보란에 실린 기사를 보면 “지난여름 저동에 살고 있는 우후를 지낸 김용원이 일본인 사진사 혼다슈노스케를 초빙해서 촬영국(오늘날의 사진관)을 설치했으며, 금년 봄에는 마동에 사는 외무아문 주사를 지낸 지운영 또한 촬영국을 설립했는데 일본에 가서 진술을 배워 왔으며 그 기술이 정교하다”며 두 사람의 사진관 개업을 보도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사진의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들임은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또한 사람 황철이라는 인물이 있다. 황철은 앞의 두 사람과 달리 중국 상해에서 사진술을 배우며 서구적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사진에 대한 수학을 마치고 귀국한 시기는 음력 1882년 말경으로 자신의 집과 종로의 대안동, 소안동 그리고 오늘날까지 사진의 메카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충무로 등지에서 사진관을 개업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갔다. 하지만 당시의 촬영은 초상사진이 대부분으로써 그 분야가 제한적이었다. 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 탓으로 부유층이나 특정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촬영을 하고 스스로 꾸밀 수 있을 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과 사진에 대한 끝없는 인간의 탐구와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앞서 단순히 나열한 카메라와 사진의 변천만 봐도 우리가 어떠한 혜택 속에 살아가는 지 잘 알 수 있다. 이에 조심스럽게 권해보고자 한다. 오늘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모습을 당신의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최고로 예쁜 모습으로 담아보라고 말이다. 



# CITY BEAT PARTY



**20**  
FRI. 8PM  
GIRIBOY  
VASCO  
NOCHANG  
SEOCHULGU  
RE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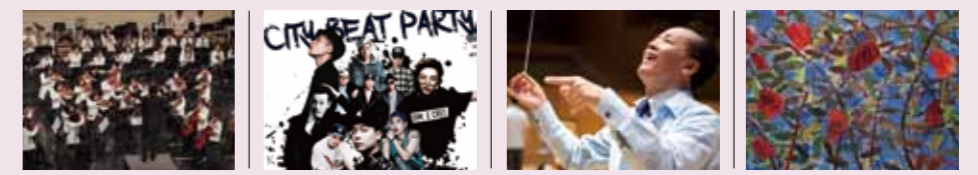
사건계곡  
STREET FOOT

**21**  
SAT. 7PM  
PALOALTO  
B FREE  
HUCKLEBERRY P  
SOUL DIVE

**2015**  
**11.20~21**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NEWS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 62 안녕?!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63 2015 City Beat Party
- 66 2015 ASAC 송년음악회
- 68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전



# 꿈의 오케스트라 안산 “안녕?! 오케스트라” 2015 정기연주회

꿈의 오케스트라 안산 '안녕?!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아동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올해로 3년 연속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 아이들과 일반학생 등 총65명을 단원으로 음악을 통한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5월 문화가 있는 날 합동공연, 8월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합동공연<I got Melody>, 10월 경기남부권 합동공연<Dream of G(Gunpo)A(Ansan, Anyang)P(Pyeongtaek)> 등을 진행하기도 한 안산문화재단의 “안녕?! 오케스트라”.

이들은 이번 정기 연주회를 위해 매주 2회씩 전문 강사진의 체계화된 지도하에 연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꿈을 향해 한발 한발 내딛는 아이들의, 올해로 세 번째 맞는 정기연주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5년 12월 16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031-481-0524

※ 본 연주회는 무료공연이며, 선착순 입장입니다.



## 2015년 가장 Hot한 Rapper들이 안산을 찾아온다

국내 힙합레이블의 선두주자 **Just Music & Hiliterecords**

인디 힙합씬의 자존심 **소울다이브**

Free Style 최강자 **서출구**

# CITY BEAT PARTY

안산문화재단이 오는 11월 20일(금)~21일(토) 양일에 걸쳐 2015 City Beat Party 콘서트를 개최한다. 국내 힙합레이블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Just Music의 대표 래퍼들인 기리보이, 천재노창, 바스코, Hiliterecords의 수장인 팔로알토, 비프리, 허클베리 피가 출연하며 국내 인디 힙합씬을 평정하며 국내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소울다이브와 스트리트 힙합 프리스타일 최강자 서출구까지 그 어느 힙합 공연보다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힙합 열풍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국내 힙합시장은 커지고 있다. 음악방송 프로그램인 Mnet의 Show Me The Money의 성공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디 래퍼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Show Me The Money3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Just Music의 대표 주자 기리보이와 바스코 그리고 Just Music의 대표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천재노창의 감각적인 가사와 비트를 만들어내며 국내 힙합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떠올랐다. 기리보이는 흥대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여성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기리보이와 더불어 천재노창은 작사·작곡 능력을 인정받아 just Music의 모든 곡을 프로듀싱하고 있다. 바스코는 우리나라 힙합 1세대로 14년 동안 국내 힙합을 이끌어간 래퍼이다. Show Me The Money3에 출연하여 다시 한 번 재조명 받은 래퍼이다.



← 천재노창





Paloalto(팔로알토) >>>



SOUL DIVE  
(소울다이브) >>>



<<< 서출구

# CITY BEAT PARTY!

Hiliterecords는 2010년 팔로알토가 설립한 힙합레이블로 수장인 팔로알토를 비롯하여 비프리, 허클베리피, 오케이션 등 국내 정상급 래퍼들이 포진해있다. 수장인 팔로알토는 Show Me The Money4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다른 래퍼와는 다르게 켈튼한 플로우와 래핑을 구사한다. 한국 힙합씬에서는 드물게 가사의 깊이가 깊은 래퍼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래퍼들이 국내에서 가장 랩을 잘한다 라고 평가하는 소울다이브는 2008년에 결성하였다. 소울 다이브의 의미는 'Soul'을 새롭게 정의 하겠다라는 포부를 담아 듣는 사람들을 영혼에 빠지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스트리트 힙합 프리스타일 최강자 서출구는 홍대 스트리트 힙합 문화를 주도한 인물로 국내 힙합씬의 신성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Show Me The Money4에 출연하여 많은 대중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경쟁에서 양보를 하여 스스로 탈락을 자초하는 상황을 만들어내 관심을 받았다. 이후 자신만의 음악을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비프리는 프로듀싱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뮤지션이라 평가받는다. 비프리가 주도해서 만든 하이라이트 컴필레이션 앨범과 자신의 정규앨범들을 들어보면 앨범을 구성하는 감각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프리스타일 래퍼인 허클베리피는 퍼포먼스와 관중 호응 유도 역시 엄청나서 대표적인 라이브 깡패 MC로 꼽힌다. 단순히 관중 호응 유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공연에서 관객들을 흥분시키는 공연을 하는 래퍼로도 유명하다.

2015 City Beat Party!는 20일(금) 기리보이, 천재노창, 바스코, 서출구, 리플로가 출연하며 21일(토) 팔로알토, 비프리, 허클베리피, 소울다이브가 출연하여 국내 힙합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 2015 RAPPER

<<< Bfree(비프리)



Huckleberry P  
(허클베리피) >>>



<<< Giriboy(기리보이)

Vasco(바스코) >>>

# 2015 ASAC 송년음악회

with 금난새 &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시민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기 위한  
2015 ASAC 명품 송년음악회가 마련된다.

## Program

### 1부

푸치니(1858-1924) 오페라 <라 보엠> 1막 하이라이트  
Puccini Opera <La Boheme> Highlight

1막 - 1830년 경의 크리스마스 이브, 파리 라틴구 근처 넓은 다락방  
누구세요?!-잠깐 (Chi è là?!-Scusi) - 로돌포, 미미  
좀 나아졌나요? (Si sente meglio?) - 로돌포, 미미  
그대의 찬 손 (Che gelida manina) - 로돌포  
제 이름은 미미입니다 (Si, Mi chiamano Mimi) - 미미, 로돌포  
오 사랑스런 아가씨(O soave fanciulla) - 로돌포, 미미

### 2부

베토벤(1770-1827)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 67 '운명'  
Beethoven Symphony No. 5 in c minor Op.67 'Schicksal'  
Allegro con brio 빠르고 생기 있게  
Andante con molto 조금 느리게  
Allegro 빠르게  
Allegro 빠르게




## Profile



지휘자 금난새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는 서울대 졸업 후 베를린 음대에서 라벤슈타인을 사사했다.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 입상 뒤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향, 경기필하모닉, 인천시향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성남시립예술단 총감독이자 성남시향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는 '벤처 오케스트라'인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현,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유라시안 필하모닉의 이름으로 창단하여 1997년 '서울 국제음악제 데뷔 후, 2000년부터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했다. 매 해 30여개 지역, 100여회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음악감독 금난새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연주자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조화 있는 연주는 매 공연 청중을 클래식 매력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늘 신선한 발상으로 다양한 연주회를 기획·연주 해왔고 기업과 예술단체 간 협력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신선한 내용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다채롭게 구상·진행하고 있다.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음악계의 새로운 행보를 선보일 예정이다.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5. 12. 24(목) 19: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주최\_ 안산문화재단 | 연주\_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_금난새)  
관람료\_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문의\_ 080-481-4000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전

# Rhapsody in 안산 (가제)

성백주, 장성순, 정문규, 신성희

2015. 12. 10 Tue ~ 2016. 1. 24 Sun



성백주\_줄장미 33.3x53cm oil on canvas

2016년은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로 안산을 빛낸 원로작가 4인의 초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성백주, 장성순, 정문규, 신성희 작가는 오랜 시간 안산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해오거나 안산에서 출생한 작가로 모두 한 시대를 대표하며 한국미술을 이끌어 온 작가들이다. 특히 안산에 정착하면서 안산 미술사의 기틀을 다지고 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성백주 화백은 1927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하여 수백여회의 전시회와 주요 미술대전의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며, 2000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수상한 한국 근현대미술계의 산 증인이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안산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다.

성백주 화백은 초기 추상미술 시대를 거쳐 풍경, 인물, 정물 등 구상회화를 넘나들며 자신의 조형 세계를 확장해 왔다. 특히 그의 장미 그림은 다채롭고 화려한 색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린 아이의 순수함처럼 친숙함과 자유분방함을 선사한다.

장성순(1927~) 화백은 전후 모더니즘 추상미술 1세대 작가로 서울대 미대를 수학하고 '현대미술가협회'를 창립한 뒤 박서보, 김창열 등과 함께 1960년대 '앵포르멜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한국 현대미술의 격변기를 몸소 겪으면서도 한국 추상미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50년 넘게 작업의 일관성을 지켜오고 있다. 초기 작업은 전후 혼란한 시대상황을 격정적 언어로 표출하였으며, 이후 작업은 서정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붓터치로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장성순\_추상B44 25F oil on canvas

##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전 'Rhapsody in 안산' (가제)

전시기간.  
2015. 12. 10(목) ~ 2016. 1. 24(일)  
\* 1월 1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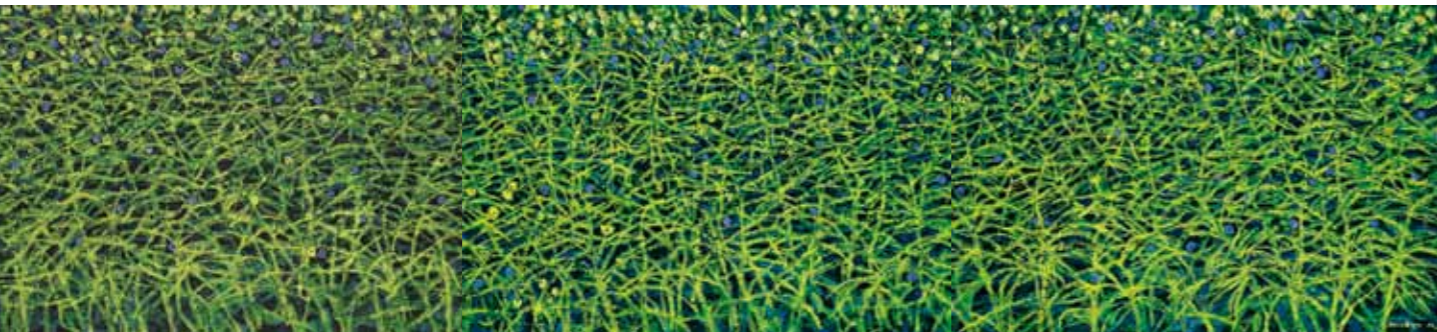
오프닝.  
2015. 12. 10(목) 17:00(예정)

장소.  
단원미술관 1관

참여작가.  
성백주, 장성순, 정문규, 신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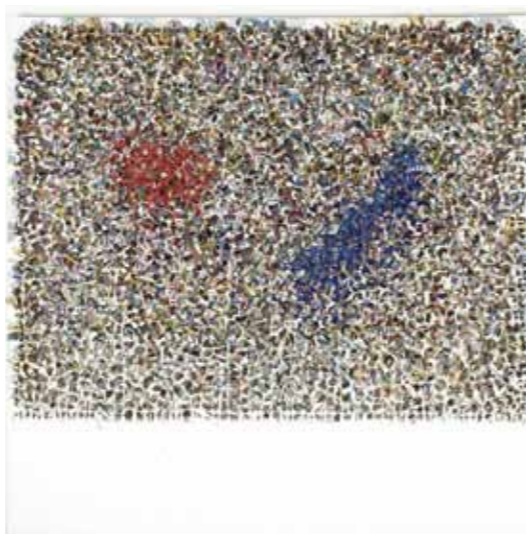
전시내용.  
작가별 대표작품 전시 및 인터뷰 영상 상영

주최, 주관.  
(재)안산문화재단 · 단원미술관




정문규\_들풀의 변주 Acrylic on Canvas 130.1x582.0cm 2014

정문규(1934~) 화백은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일본 문부성 장학생으로 동경예술대학 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는 50~60년대 앵포르멜 추상미술의 흐름 속에 한국적 정서를 반영한 토속적 추상미술을 시도했으며, 70~80년대는 인간 내면의 인간을 탐구하는 'EVE' 시리즈로 독창적인 한국적 구상 표현주의를 추구하였다. 이후 암 투병을 겪고 난 후 풍경, 꽃 등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생명력을 바탕으로 내면에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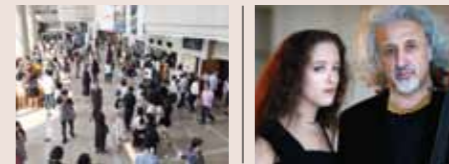
신성희\_공간별곡 200x200 2006 acrylic on canvas

안산 출신인 신성희(1948~2009) 작가는 현 안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고,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나와 1980년대 이후 프랑스로 건너가 회화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시도해 왔다. 특히 누아주(Nouage, 엮음)라는 독창적 기법은 평면을 해체하여 3차원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프랑스 뿐 아니라 세계 미술계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 'Rhapsody in 안산'에 소개되는 4명의 작가들은 모두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오며,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에 한 획을 그어온 작가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각기 다른 개성과 조형언어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비록 이들이 보여주는 조형언어와 표현양식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이 일생에 걸쳐 캔버스 위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과 목표는 결국 '내면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였을지도 모른다. 이번 전시에서 이들 4인이 펼쳐보이는 예술세계는 유랑하는 음유시인이 들려주는 노래처럼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귀결되는 환상의 랩소디를 선사할 것이다. 

# REVIEW (리뷰)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72 리뷰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ASAC 콘서트

##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금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의 첫 만남!  
열정적인 무대가 달궜놓은  
여운을 나누고 기억하다



“청중은 나의 존재 이유다. 나는 공연 내내 청중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 좋은 소리는 청중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다”

- 미샤 마이스키

# Mischa Maisky



‘명불허전(名不虛傳)’

금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거장의 공연에 안산시민들은 1,400여 석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극장인, 해돋이극장 전석 매진으로 환영했지만 무대는 여전히 작아만 보였다.

티켓을 예매하지 못한 시민들은 단 한 번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공연장을 찾았지만 아쉬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피아니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딸, 리사와 함께 한 <미샤 마이스키 리사이틀> 공연 리뷰(review)를 관객들이 남긴 감상평으로 여운을 더한다.

**REVIEW 01 >** 40여 년 넘게 한 악기만을 고집하고 같이 호흡을 맞춘 음악가에 대한 완벽한 신뢰, 잦은 연주여행으로 인해 연주가가 지켜야할 에티켓이라 여겨지는 정장을 가볍고 툭툭 튀는 의상으로 갖춰 입는 등 클래식을 연주하는 이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쩌면 관행처럼 이어져왔을 뿐 얼마든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연주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물론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의 지적에 당당히 소신을 펼친다는 건 그만큼 실력을 갖췄기에 가능한 일이란 것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라트비아에서 태어나 이스라엘로 이주, 러시아 당국에 의한 수용소 수감, 정신병원 입원 등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생을 살아 온 미샤 마이스키의 삶에 대해 알게 되니 연주 역시 그냥 지루한 클래식으로 들리지 않았다.



## “ 미샤 마이스키의 음악을 듣는 것은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경험이다 ”

특별히 이번 연주회는 피아니스트인 딸과 함께 한 공연이었는데 가족에 대해 헌신적인 미샤 마이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딸과 연주하는 모습에서도 사랑과 깊은 신뢰가 느껴졌다. 정말 아름답고 안정적인 모습 이랄까? 클래식에 대해 그다지 아는 게 없어도 그냥 좋아 보였던 건 미샤 마이스키란 사람에 대해 알게 되어서 그랬던 건지,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란 수식어가 붙어서 그랬던 건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환호하는 관객들에게 진심을 다한 인사와 3번씩이나 앙코르 곡을 선물해 준 것 만으로도, 열기 넘치는 현장 안에 함께 있던 것 만으로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연주하다 활에서 끊어져 나온 활털을 주워 온 건 순전히 오늘의 연주회가 내게 큰 기쁨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를 직접 보게 될 날이 올지 알 수 없으나 그가 남기고 간 흔적만으로도 즐겁게 미샤 마이스키와 그의 딸 릴리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긴 연주 시간에도 불구하고 앙코르 곡을 무려 세 번이나 연주하기에 대단하다 했는데, 이 연주회를 보고나서 마이스키에 대한 관심이 커져 검색을 해보니 다른 지역에선 5번 앙코르로 수두룩... ‘우린 왜 세 번만?’이란 생각보단 그저 대단하단 생각만 들 뿐이다.

\_ gaon2\*\*\* 님

**REVIEW 02 >** 아버지와 딸이 한 무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감을 나눴을지...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영혼까지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족과 나누는 것은 정말 축복 같아요. 특강을 듣고 보니 의상, 박수치는 예의 등 관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_ yesu\*\*\* 님

**REVIEW 03 >** 스무살무렵 수용소에 갇혔었던 그의 남다른 이력에 귀가 열렸던 걸까? 이들은 나보다 더 집중하며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간간이 들려주신 연주곡들 배경 등 설명을 듣고나니 아인슈타인을 닮은 생전 처음 보는 그 첼리스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딸 릴리와 함께 시작된 그의 공연은 전석 sold out 시킬만큼 온몸에 전율이 오는 어마어마한 힘을 느끼게 해주었다. 나의 허기진 영혼을 그분도 느끼셨을까...? 땀을 닦아가며 세번의 앙코르 곡을 열정으로 연주해주고 막을 내렸다.

\_ dmsw\*\*\* 님



정리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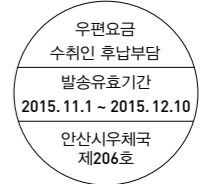


# 하늘다리

2015 | 11/12 | VOL. 51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받는 사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교잔동)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앞



# 라디오

### 독자 설문

1. <하늘다리> 11+12월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  
.....  
.....

2. <하늘다리> 2016년 01+02월호에서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  
.....  
.....

3. 안산문화재단에서 보고싶은 공연은?

.....  
.....  
.....

4. 그밖에 <하늘다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  
.....  
.....

5. <하늘다리>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 :

이메일 :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하늘다리> 문의 031-481-4046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 www.ansanart.com

#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현재

총 누적금액 **378,097,43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 달빛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쉼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안산대학교,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 하라킵즈, 포스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음악동아리 '딴따라',  
(주)크레디아인터내셔널, 지구촌문화협회 김윤호, 롯데카드 주식회사

####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이상철, 이시영

####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중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앤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중호, 대신전시(김기영),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양미경, 주부연교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시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농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벅스캠프, 쟈마트리, 천사부메랑, 김중서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최민석, 거룡전력(주) 홍희성, 이니티움

#### 햇빛회원

안산도시개발(주),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 기쁨회원

라이프스포츠

